한 번 시공으로 만년을 보장하는
대원 청동주물기와
전화 : (02) 739 - 8745 · 735 - 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1월 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앞짝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고 있는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숫타니파타〉

법회 안내

개운사 924-3842
신도법회 매월 초하루(음)
인등기도 매월 보름(음)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경국사 914-5447
청화 법회 매월 10일(음)
지장 법회 매월 18일(음)
관음 법회 매월 24일(음)
사경 법회 매주 수 오후 1시

봉국사 919-0211
약사재일 매월 8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기도 매월 24일(음)
청년회 법회 매주 일 오후 3시

원효정사 744-9686
산중재일 매월 7일(음)
현일지장기도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광도사 979-5183
장기 법회 매주 일 오전 10시
어린이 법회 매주 토 오후 3시
경전 읽기 매주 금 오전 10시

정토사 883-5554
새벽예불 매일 오전 3시30분
초하루기도법회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청주 연화사 (0431)62-0310
관음특별기도 3주간

광주 천왕사 (062)227-7034
신도 법회 매월 초하루(음)
지장 재일 매월 18일(음)
관음 재일 매월 24일(음)

성남 봉국사 (0342)755-0329
백일기도 (9. 13~12. 24)(음)
어린이 법회 매주 일 오전 9시
중고생 법회 매주 일 오후 2시
청년 법회 매주 일 오후 5시

동국대 경주병원 법당
(0561)748-9320
아침 예불 매일 오전 8시30분
직원 법회 1, 3주 수 오후 5시30분
환자 법회 매주 목 오후 2시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신행 포교 새 바람
지역 법회 확산

봉사 · 상조등 불자 공동체 다져 … 조직분산 우려도

법회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법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법회'가 새로운 포교현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법회가 더 이상 법당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주문을 박차고 나선 것이다.

지역법회는 10~20여명의 불자가 각각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정기법회를 갖는 것으로 도심 사찰과 포교당에서 운영, 커다란 성과를 얻고 있다.

법회의 명칭은 사찰에 따라 법등 · 구역 · 마을 · 법형제 · 화담법회 등으로 불린다.

이들 법회들은 대부분 지역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스님과 신도, 신도와 신도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작은 인원이 동참하기에 법회효과를 크게 높이고 있다.

또한 상조회의 기능까지 갖고 있어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와 지역봉사까지 활동영역을 넓혀 불교의 대 사회문등을 펼치고 있다.

지역법회는 서울 불광사 회주 광덕스님이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2년 본격적으로 지역법회를 운영한 광덕스님은 행정구역인 구마다 구법회를 조직하고 구법회 산하에 법등모임을 두어 현재 3백여개의 법등이 활동하고 있다.

불광사의 법등모임 성공은 도심사찰에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후 삼보사, 봉은사, 능인선원 등에서도 지역법회를 운영, 포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지홍)는 특이하게 지역법회로 사찰을 창건한 경우.

'89년, 광명시에서 청년회와 법등모임 3개를 운영하면서 2년만에 법당을 마련한 것이다. 금강정사는 27개의 지역모임을 경전읽기, 참선, 기도정진을 하는 수행모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활동을 펼치는 환경개선모임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으로 불교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지홍스님은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자치제에 사찰도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역법회를 통해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할 때 사찰도 지역공동체로 뿌리를 내릴수 있다"고 강조한다.

안양 한마음선원(원장 대행)도 서울과 경기일원에 지역별로 24개의 법형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10명 안팎의 거사들로 구성된 법형제는 매월 1회씩 신도들의 가정에서 법회를 개최, 각지 형제가 되어 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의 법형제는 지역법회가 법회 성격상 여성이 대부분인 것에 반해 거사들로 조직되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보살들의 모임인 신행회에서도 90여개의 지역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 봉은사도 서울의 7개구에 연등법회 21개와 법륜법회 41개가 활동중이다. 봉은사의 구역법회는 결혼상담과 전통찻집,상조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구별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상계동 사천왕사(주지 현등)는 5년전 개원과 함께 24개의 화담법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능인선원(주지 지관)의 가정법회, 무진 법장사(주지 법장) 지역법등법회도 포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에서도 특성에 맞는 지역법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 법화사(주지 시봉)는 농한기를 이용해 10년째 마을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화사 신도를 20여 마을로 조직, 마을을 순회하며 매일 법회를 봉행한다. 법화사 마을법회는 1달간 계속되며 주지스님과 신도회 간부들이 주선한다.

이처럼 지역법회의 성공적 운영에 대해 서울대 사회학과 이각범교수는 "소규모 종교공동체가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법회는 생활과 도반을 가까이서 구할수 있어 신도들의 참여가 높다"고 설명한다.

지역법회는 그동안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신앙형태, 조직 등에 많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10여년이 넘는 지역법회에 대한 연구 · 교재부족 △지역별 세력 그룹화로 조직분열 △선거기간에 정치세력화 △일방적인 법회운영으로 권철 된 신앙생활 △소비생활의 정보교환장소로 흐르기 쉬운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준엽 기자〉



얼굴잃은 부처님 … 국보 2호의 수난

탑골공원 안의 원각사지 10층석탑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 92년 문화재 관리국의 실측조사보고 때 이미 그 심각성이 대두 됐으나 당국과 교계의 무관심아래 점점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공해 · 산성비 · 조류의 오물 등 자연 이외에다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한 인위적 훼손까지 겹쳐 탑의 기단과 각층의 회상도가 몰성사납게 변해가고 있다. 성보이며 국보인 이탑의 보호는 당국과 불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과제다. 〈관련기사 13면, 사진=백차환 기자〉

교구종회법 승려법등 제 · 개정

조계종 11차 개혁회의

조계종 제11차 개혁회의(의장 석주)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돼 교구별로 각5명씩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교구종회법 본사주지회의법 사찰운영위원회법 등 10개 종법을 제 · 개정했다.

66명의 의원이 참석한 이날 개혁회의는 제1교구 조계사 교구선거 관리위원 등 24교구에 각각 선거관리위원 각 5명을 구성했다.

이어 종법 제 · 개정안건보의에 들어간 개혁회의는 교구종회법 본사주지회의법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사찰운영위원회법 원로회의법 등을 각각 새로 제정하고 총무원법 지방종정법 법규위원회법 승려법 교육법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목어

조계종의 개혁불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비구니스님들의 참정권 제한 문제로 조계종단 안팎이 어수선하다. 총무원장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20명의 선거인단 구성에 비구니 스님들은 10명 밖에 할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혁회의의 입장은 종전의 5석에 비해 1백% 신장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종단내 성별의 비율이나 시대흐름을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는 것이 비구니계의 입장이다.

사실 조계종단의 보수적 풍토 속에서 비구니승려들의 입지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사부중? 일부중?

남녀의 평등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비구니의 존재는 솔가했다는 사실 자체로 만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 제한은 조계종의 보수적 전통 속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안이다. 그러나 단지 비구니이므로 참정권을 제한한다거나 진동이니까 그럴수 밖에 없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그지없다.

설사 몇몇리한 전통이었다 하더라도 구각을 탈피하고 새로운 면모로 역사발전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 할 것이다.

또한 4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서도 승단 내부의 성차별은 추방돼야 마땅할 것이다. '남어니면서 고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여하에 따라 귀천이 정해진다'는 숫타니파타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의 개혁불사가 사부대중의 화합속에 원만히 성취되길 바란다. 그것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이 시대의 개혁이 무엇인가는 심사숙고해야 마땅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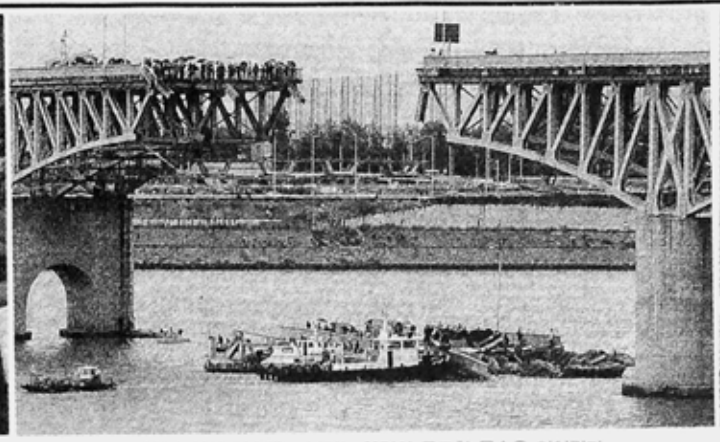
금주의 현대불교

인명경시 · 황금 만능이 부른 업보 ····· 2면
산문밖의 선 박준수 부장판사 ····· 5면
수요 인터뷰 광덕스님 ····· 7면
지상법석 송광사 방장 승찬 스님 ····· 8 · 9면
"놀이하며 부처님 닮아가요" ····· 11면
불교사전 주제별 편찬 활발 ····· 12면
원각사지 10층석탑 훼손 심각 ····· 13면
관공서 · 기업체 연수에 참선 바람 ····· 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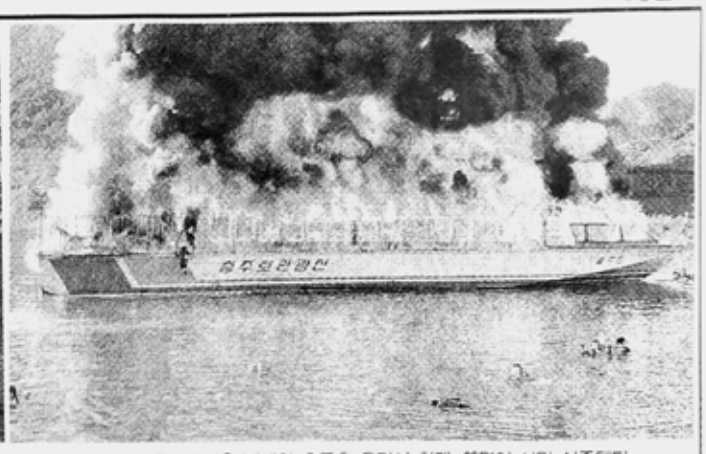
세계경영 우리기술- 대우
대우가족
대우 해외법인이 2배로 늘었습니다
세계경영의 성과가 무한대로 커집니다
해외산업기지 229개로 국내 1위—
대우는 국부창출에도 가장 앞서갑니다.
세계경제전선에서 공세적 「세계경영」으로 한국 1위의 신화를 만들어온 대우의 해외법인이 작년말 76개에서 현재 135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94개 지사를 포함, 229개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해외 산업기지를 갖춘 대우는 지구촌 곳곳을 빈틈없이 연결하는 종합 비지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대우는 앞으로도 "2001년 600여 해외 산업기지 구축, 해외 현지매출 35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계경영」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세계경영」 해외 산업기지 구축현황—
현재 229개 2001년 목표 600개



◇ 지난해 3월 28일 68명의 대형 인명참사를 일으킨 구포 열차충돌 사건 현장.



◇ 10월 21일의 성수대교 붕괴는 3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 성수대교 참사 3일후 발생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 29명이 사망 실종됐다.

열린마당

인명경시 · 황금만능이 부른 업보

대참회의 시간을 갖자

사 설

우리 사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사고에 의해서, 범죄에 의해서 아까운 목숨들이 사라지고 사회적 가치가 능멸 당하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원은 부족하고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곳에 정토구현하겠다는 원, 생명이 왕성하고 활기차게 그 삶을 영위하게 하겠다는 원, 근면과 성실로 복지를 높이겠다는 원이 부족하다.

대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는 욕심, 더 벌겠다는 욕심, 남을 이기겠다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사회의 질서를 훼손하였다.

성수대교의 참사는 우리 사회의 해체를 예고하는 커다란 경종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자는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켜야 할 분업의 도리이다.

자기가 짊어진 업은 회피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이득만 취하려 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발한 것이다.

만약 공사를 발주한 관청에서 공사와 관련한 뇌물과 무관하게 공사의 발주와 감독, 준공절차를 지켰다면 오늘의 이 부끄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공사를 맡은 업체가 설계에서 마무리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는 대신 몇단계의 하도급과정을 거치면서 중간마진이나 취하는 식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까운 여고생들의 앳된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회적 병인을 고려하면서 이번 사고는 현 정부에 이르는 역대정부에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우선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이 우리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하는데도, 역대정권은 부패의 환경 속에서 온존할 수 있었고, 한때 기세가 풍던 문민정부의 개혁은 철저하지 못한 채 풀이 죽었다.

사회의 질서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가 최근에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복무질서 확립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는 허약한 인상을 주고 있다.

나사가 빠진듯한 공직사회는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주고 있지 못하다.

민생치안의 부재, 각종사건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 목표를 향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여년의 군사독재정권이 갖지 못한 정통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은 의외일 수 밖에 없으나, 바로 이와같은 국정의 틈새로 대형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탓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범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사회에 덮어씌우는 것이 부적절함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이 사회를 사는 사람들 모두가 '내탓'임을 먼저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우선 대참회의 시간이다.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아끼는가. 우리는 정직하며, 남의 재산에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작은 부딪침으로 남을 미워하지 않았는가를 자문해 봄때다.

마지막으로 이땅에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 큰 원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다시 쌓는 출발을 해야겠다.

눈가림 정치 그만해야

전문가의견

지존파라고 하는 살인집단이 날뛰고 그런가 하면 세금 도둑이 공직에 자리를 틀고 앉아서 국민을 비웃듯이 세금도둑질을 하고 그에 그치지 않고 부정부패의 원흉인 공직자가 재판을 통해 거의가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나와서 함말이 있다고 시끄럽게 떠들어 댄다. 그런데 마침내 대낮 한강 다리가 무너져 사람이 죽고 다치는 끔직한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다리가 무너진 것을 비롯해 비행기가 떨어지고 배가 가라 앉으며 기차가 뒤집히는 참변을 치렀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주 딱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 모든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의 잘못과 당국의 태만과 무능이 겹쳐서 일어나게 된 재난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당초부터 개혁을 외쳐 왔으나 기득권 부패 세력의 반발에 밀려서 개혁다운 개혁을 못한 채 공직사회를 기득권 세력과 현상유지를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관료의 매너리즘과 기회주의의 타성을 방치해 버리는 꼴이 되었다.

이번에 일어난 성수대교의 붕괴사고를 두고 봐도 관료는 공사의 문제로 괴해 나가려고 할수 있고, 공사를 한 건설업자는 무리한 관리나 관리 자체의 부실로 미룰수 있고 나아가서는 불가피한 복합 요인으로 말미암은 운수 사나운 사고로 서로 미루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예전 수법으로 이 사고를 넘기려고 한다면 순서와 방법은 당장엔 〈시간 끌기〉와 서로 책임전가 논쟁으로 초점을 흐려 놓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다른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깜짝사건〉이 터지면 그곳으로 사람들의 신경을 집중토록 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일일 것이다.

제발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한 국민에 대한 기만수법이 통하는 바보놀이의 우민정치가 끝장을 보아야만 사람으로 말미암은 재난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명심하길 특히 공직자들에게 경고한다.

기술문명의 산업사회는 마치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 그 권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망가져서 지옥의 고통과 정글의 아수라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직과 신의, 성실이 자리 잡지 못한 산업사회는 정글 그 자체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한 채 물량적 성장만을 으뜸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기본 자격이 없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기강의 확립은 성실과 정직이 통하게 해야만 가능하고 그것은 지도층이나 기득권층의 솔선수범으로서만이 전기를 잡을수 있다. 도둑이 살아져서 편안하게 살고 협잡이 유능으로 평가되어 치부에의 길이 되는 것이 용납된다고 할 때에 어느 공직자가 땀흘리며 자기 일에서 보람을 느끼겠는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공직구조는 그 자체가 공중분해 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 남으려면 비장한 각오로 새출발을 하는 전기를 새삼스럽지만 마련해야 한다. 제2, 제3, 제4의 성수대교 붕괴를 막는 일은 기득권층과 공직사회의 부정과 무책임을 깡그리 씻어내는 일대 자체 수술을 통한 쇄신과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 일을 치루어 내지 못하면 우리는 개인으로서나 민족으로서 희망이 없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한 상 범 〈동국대 법학과 교수〉

잇따른 人災에 충격···정책 대전환 절실

편집국에서

이번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몇년간 우리들은 대형인명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탄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인재(人災)라는데 있다.

부지런히 출근하던 회사원이나 등교하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점에 대하여 그들을 위로할 말조차 찾을 수 없다. 만일 피해 당사자가 '나'거나 우리의 일가친척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임에 틀림없다.

시간을 전후해 많은 사람들이 다리의 결함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의혹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행을 막지 못했다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대안 개발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다층적 하청체계다. 우리나라의 건설이 몇단계의 하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풍토 아래서 올바른 건설을 기대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몇때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의 암영이다. 군사문화는 이 땅에 전시행정을 고질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실패한 점이다. 우리 사회는 민족사의 전환기 마다 민족의 정기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 보다 시류에 영합하거나 변절한 기회주의자들이 대접받고 출세하는 풍토를 용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인들이 직접적인 요인들이라면 인명을 존중하는 사회 기풍을 양성하지 못한 점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래의 공공계를 상실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할 정책적 배려가 전무했던 것이다. 인간의 생명 보다 물질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 우리 정부의 현실이다. 농촌 중심 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상실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 내지 열등감을 심화시켰다. 산업구조에 따른 국민 정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든 안타까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사회연대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연대의식이 결여되므로써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가 강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인의식이 결여된 시민 정신, 기업윤리의 상실, 고발정신이나 협동의식의 실종 등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 즉 사회연대감의 함양이 초석이다. 그 초석을 바탕으로 전국민적인 「더불어 미덕」을 함양해야 한다. 「더불어 삶의 미덕」이 한국 민족의 심층을 형성한다면 성수대교와 같은 인재로 억울하게 인명을 빼앗기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도들은 2천만이란 숫자 놀자랑하기 보다 더불어 삶의 미덕을 함양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인간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정신을 확고하게 이 민족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부산 FM 89.9MHz 서울 FM 101.9MHz 광주 FM 89.7MHz

불교방송을 부산, 경남지역과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불법홍포와 지방문화 창달의 새 지평을 열어갈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이 곧 탄생됩니다.

부산·경남지역과 광주·전남지역 일부를 가청권으로 한 불교부산방송, 불교광주방송은 정부로부터 95년 4월 10일까지 준공을 조건으로 설립을 허가 받았으나, 본사는 **늦어도 95년 2월까지 개국을 목표로** 방송시설공사와 기자재 발주 등 모든 업무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사는 부산·경남지역, 광주·전남지역 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의 뜻을 모아 지방국을 여법하게 설립하여, **불자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방송**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 설립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주 파 수 :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 시 험 방 송 : 95년 1월 8일(성도절)
* 개국예정일 : **95년 2월 1일**
* 사 옥 : •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833-13 보생빌딩 10, 11층(부산)
  • 광주직할시 북구임동 78-2 대수 빌딩 2층(광주)
* 전 화 : • 051-644-5114(부산) • 062-528-6261(광주)

○ 불교부산방송 설립성금 접수

은 행 명	구 좌 번 호	지 점 명	예 금 주
국 민 은 행	129-01-0000-650	범일동출장소	불교방송
농협중앙회	905-17-001278	부산진 지점	"
동 남 은 행	001-04-0130-761	본 점	"
부 산 은 행	020-13-000218-6	본 점	"
외 환 은 행	050-13-25048-2	범일동 지점	"
한 일 은 행	041-173791-13-201	범일동 지점	"

○ 불교광주방송 설립성금 접수

은 행 명	구 좌 번 호	지 점 명	예 금 주
광 주 은 행	013-127-004081	광주 지점	불교광주방송
농협중앙회	616-01-076513	광주 지점	"
중소기업은행	189-039430-01-011	중부 지점	"

BBS 불교방송

경력·신입사원 모집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지 역	모 집 부 문	구 분	인 원	응 시 자 격
서 울	기 자 직	신 입	0 명	신입사원 • 불교대학 졸업이상자 또는 졸업예정자 남 자 :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 여 자 : 1963년 1월 이후 출생자 경력사원 • 불교대학 졸업이상자로서 전무경력 3년 이상자 남 자 : 1960년 1월 이후 출생자 여 자 : 1963년 1월 이후 출생자 공 통 • 병역필 및 면제자 • 레저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자 • 기술직은 전자 전기 통신전공자 단) 부산실버 기타 자격증 소지자 우대
부 산	방송직(PD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신 입 및 경 력	00 명	
광 주	방송직(PD 기자 아나운서 기술직)	신 입 및 경 력	00 명	

2 전형방법 :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불교학 개론 논문 작성검사) 3차 인성

3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소정양식) / 1부 2) 병합관 사진 / 2매
3) 자격증 사본(행출개출직종 소지자에 한함) 4)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4 원서교부 일시 및 접수
• 일 시 : 1994년 11월 1일 ~ 11월 9일(수)
• 교부 및 접수
본 사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대보 B/D 15F/T 02-705-5224~6)
불교부산방송 :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3-13 보생 B/D 10 · 11F/T 051-644-5114)
불교광주방송 : 광주직할시 북구임동 78-2 대수 B/D 2F/T 062-528-6261)

5 기타 사항 : 1)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신행수첩

불자로 태어나는 의식 조계사등 가을수계법회

불자들이 참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수계법회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거행되고 있다.

서울 암사동 동명사(주지 지명)는 10월30일 오전10시 제1회 보살수계법회식을 실시한다. 서울 조계사(주지 현근)도 11월9일부터 3일간 보살계수계산림법회를 개최한다. 동명사 계사는 혜담스님이며 조계사 계사는 혜정스님이다.

보살계란 대승의 보살들이 받아 들이는 계율이다. 10중대계와 48경계 등이 있다.

불자라면 마땅히 계를 받아야 한다. 계를 받았을 때 비로소 부처님 제자로서 자긍심을 갖게 된다. 예로부터 큰스님들은 '앉아받고 서서 과할지라도 계를 받아야 한다'며 수시로 계 받기를 권장했다.

수계는 계사스님을 모시고 연비의식으로 진행한다. 계사스님의 증명으로 불자됨을 허락받고 불명을 받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연비를 향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처럼 계를 받아야 비로소 불자로 다시 태어난다. 고려시대에는 입금들도 정기적으로 보살계를 받았다 한다. 계를 받지 않았거나 이미 계를 받은 불자라도 올 가을엔 가까운 수계사찰을 찾아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자(동명사 427-7088 조계사720-1389)

금니 법화경등 보물 친견 조계사 학생회 광덕사서

젊은이에게 여행은 견문을 넓히고 인격을 완성하는 훌륭한 방편이다. 조계사 중고학생회(회장 조성혁)는 30일 가을 정기사찰순례를 천안 광덕사에서 갖는다.

사찰참배는 신심까지 높일수 있어 청소년 불자들에게 중요한 신행으로 자리잡고있다.

어느 사찰을 누구와 함께 찾느냐도 중요할 것이다.

단지 사찰참배로 끝낼것이 아니라 사찰에 담긴 의미와 역사를 현장에서 찾아보는것은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이다.

조계사의 이번 사찰순례에는 종문스님이 이끄는 법사단과 교사단,학생회 회원,동문등이 동참한다. 조계사학생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중 고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권해본다.

광덕사는 28방 89암자가 있었다는 광덕산 기슭에 자리해 있다. 신라 흥덕왕 7년(832년) 진산화상이 창건했다. 금자 사적기와 세조어첩등의 귀중한 보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고려말기의 사경으로 추정되는 금은자 법화경(보물 제390호),진산화상부도(지방유형문화재),3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 제120호),천불전 후불탱화등의 많은 문화재가 있다. 특히 절마당에 있는 호도나무는 유명한 천안호도의 시조로 참배객의 눈길을 끈다.(734-8179)



◇천안 호도의 기원으로 알려진 광덕사

가을밤의 찬불가 공양

대한불교·청룡사·법안정사 등 13개 합창단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향을 사루고 예불하는 정성으로 음성공양을 올린다.

11월5일 오후 7시 KBS홀에서 열리는 '94 불교음악의 대향연'에는 불교계 작곡가들의 창작곡이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고소화, 김희진 외 4명의 독창과 정옥녀, 김회경씨의 지휘로 불교합창단의 화음이 울린다.

천안 동여자중학교 학생들도 특별 출연해 가을 하늘을 더욱 높게 할 것이다.

팔만사천 부처님 석왕사 2차 점안

팔만사천 부처님을 모시는 점안식이 거행된다.

경기도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오는 10일 오전9시 석왕사 대웅전에서 창건 18주년 기념법회를 갖는다.

석왕사는 1976년 창건돼 18년 동안 불교 취약지역이던 부천지역에 유치원, 탁아소, 지역신문에 이르는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석왕사는 현재 신도수 3만명이 넘는 대사찰로 성장한 불교계 도심포교의 모범사찰로 인정받고 있다.

석왕사는 또 매년 백중 경로대잔치와 문화대잔치, 풍지팔죽 대보시등의 행사를 통해 민족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리는 활동도 해왔다.

석왕사는 이번 창건 18주년 기념법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팔만사천불 2차분의 점안식을 갖는다. (032-663-7774)

초의스님 다향 아직도 미황사 무위사 순례

국토문화순례 모임 터사랑(대표 전숙희)은 성보문화재, 전설이 가득한 전남 지역 불교유적지와 고찰을 순례한다.

11월12일과 13일 양일에 해남 대흥사 미황사 무위사 등을 참배하고 땅끝마을 녹우당등을 돌아본다.

대흥사는 조계종 교구본사로 서산대사 초의선사와 인연 깊은 고찰. 고풍스런 당우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미황사는 김해불교 전래설화를 지닌 명찰이다. 무위사는 국보 백의관음벽화로 유명하다.(725-1284)

돌부처님 미소만나 경주남산 불적답사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보려거든 경주남산 돌부처의 미소를 보게하라'는 말처럼 신라고도 경주는 우리 불교의 포근한 고향이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학생회와 총학생회 종교부, 남산불적연구회는 11월4일 오전 9시부터 경주일대에서 신라문화 유적답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젊은이들에게 우리문화의 원류인 경주의 전통과 혼을 체험케 해 새로운 겨레의 웅비를 꿈꾸게 하기위해 계획됐다.

경주 수호자로 알려진 윤경렬선생의 안내로 사천왕사지 능지탑 중생사 황복사지 황룡사지 분황사 안압지 골굴암 기림사 감은사지 대왕암 이견대 등을 답사, 불교문화에 담긴 옛 선조들의 불심을 재확인한다.

1만 연등에 불밝혀 대각국사 탄신기려

1만연등에 불을 밝히는 만등법회가 11월 1일 승주 선암사에서 열린다.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탄신939돌을 기리는 이법회는 전통다례의식으로 시작해 보살계도 봉행한다.

의천스님은 문종의 네째 아들로 선종의 동생이며 인예왕후를 어머니로 1055년 태어났다. 11세에 영통사로 출가하여 1085년 송나라로 유학, 14개월만에 3천여권의 경전을 가지고 귀국했다.국청사에서 천태교학을 강의했으며 이는 고려불교계와 사



◇대각국사 의천 진영

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님은 1101년 나이 47세 법랍 36년으로 입적했다.

선암사는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백제고찰 의천스님이 중창한 종합 수도도량으로 전통을 잇고있다. 특히 절입구에 있는 승선교(보물 제400호)는 석조예술의 극치를 보이는 아치형 돌다리로 주변의 경관과 어울려 참배객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선암사 0661-54-5247)

게 시 판

▲통신생 모집=강원불교대학(학장 권택운)은 주,야간 통신과정 신입생을 11월15일 까지 모집한다. 전형은 17일이며 강의는 불교교리 동양사상 철학 일반교양등의 교과목이 진행된다.(0361-51-5040)

▲카운슬러대학=자비의 전화는 제8기 카운슬러대학을 11월21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진행한다. 수강료는 6만원. 교육기간동안 자비의 전화는 성훈따주기 강좌를 함께 강의한다. 강의는 매주 화,목요일이며 수강료는 3만5천원.(737-7378)

▲승려부인회 연수교육=태고승려부인회(회장 조묘련화)는 11월 7일 ~ 9일까지 수유리 소재 통일연수원에서 제2회 연수교육을 갖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성직자 도반으로서의 대사회 봉사활동의 기틀을 다진다.

▲시민불교상 후보추천=마산 창원불교연합회부설 시민불교문화상 운영위원회(상임위원장 지안스님)는 제4회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 후보추천 접수를 받고있다. 후보자격은 불교와 지역문화창달에 기여한 향토문화예술인,언론인, 봉사자,단체로 활동 경력이 10년이상(단체 5년)인 자이며 본인의 종교는 무관하다. 접수는 31일까지이다.(0551-43-5593)

▲불교원전 강좌=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불교학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불교원전연구회 강좌를 마련, 11월 2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입회원서 1부, 사진 2매이며, 접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765-9602)

▲비구니 선방 개원=비구니 선방이 경기도 안성군에 개원됐다. 삼정선원(원장 응선)에서 마련한 비구니 선방은 휴양하거나 공부하면서 여생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보살들에게 좋은 방사를 완비하여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도정진과 함께 한달에 2회 자압과 무료 기공진료도 받게 된다. (0334-74-3578)

▲중앙승가대 신입생모집=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은 9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12월 5일부터 원서를 교부키로 했다. 모집인원은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각각 60명씩이며, 원서접수는 내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925-5507)

▲부처님마을 개원 10주년=경북 경주 소재 부처님마을(촌장·도문)은 11월 5일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콩코드호텔 루비룸에서 개최한다.
6일 오전에는 법당 봉불식을 봉행하고 오후에는 발원지인 천북면 원효사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갖는다. (0561-745-3285)

▲신원식기자 11월13일 화혼=신원식기자(한국불교신문사)가11월13일 오후 1시 전남 담양 버스터미날 옆 담양군민회관에서 박경희양을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당일버스 출발:한성대 전철역 8시 (743-8005,745-1611)

나의 수행일기

염주 팔에 감고 잠드나 아직 0점

공 종 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영점 불자일지 모른다. 집에서 다니는 은광포교원에 열심히 찾아가 부처님께 예배하는 처지도 아니고, 주지스님을 찾아뵙고 절 살림을 함께 걱정하는 열심신도도 못되는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에서라도 부처님을 모셔놓고 매일 1백8배를 올리든가 하루에 얼마리도 선정삼매에 들어 불심을 갈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따라다니며 내 행동을 관찰하고서 나를 불자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기에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근년들어 내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은 물론 사회일각에서도 나를 불자로 인정하고 틀림없는 불교인의 반열에 넣어준다. 그리고 나자신도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 신상을 밝히는 나의 종교란에 거침없이 '불교'라고 쓰게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80년대 중반이후의 일일 것이고 특히 〈전환기의 한국불교〉를 출간한 1987년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제는 〈돌아앉은 부처〉니 〈이땅의 쇠북소리〉니 하는 불교관계 컬럼집을 계속 펴낸만큼 나를 불교와 무관한 사람이거나 불교의 현실을 냉정히 비판한다고 했어도 글 속에 담겨있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넘쳐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 속마음이 곧바로 드러나게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신행과 수행이 어찌되었건 상관없이 내가 불교인으로 인정된 것은 바로 내 글을 통해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의 불교신행이나 수행생활은 아무래도 좋다고 할 수도 있다.

나는 등산길에 산사에 들르게 되면 우선 부처님을 뵙고 오체투지하며 그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힘을 구한다.

그리고 혹 내가 세상의 사물을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얻으며, 혹 내가 막강한 세력의 위협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한다. 그리고 나는 내자신이 경손하고 주의깊게 살아가지만, 혹 위험이 있거나 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과감히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다. 내 곁에는 늘 부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다. 내 곁이 아니라 바로 내안에 계신 부처님을 항상 잊지않으려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내 삶을 지금껏 큰 과오없이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 신행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것이다. 어렸을때 신심깊었던 어머니를 따라 보살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던 시절이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부처님께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수없이 절을 하던 고교생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며 불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던 시절을 거쳐 매스콤에 투신한후 불교의 현실에 참담한 분노를 느껴야 했던 종교담당 기자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종교인 불교를 되살리는 길은 다른 누구아닌 내자신이 불교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가능할 것이라는 오만에 가까운 사명감을 다지던 시절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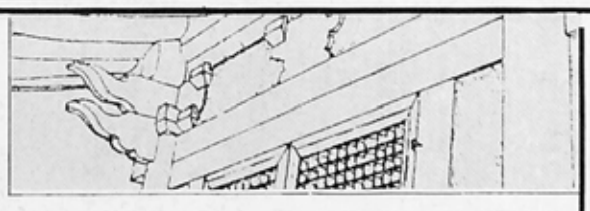
바로 그런 오만으로해서 불교의 타력 신앙적측면을 무시하고 오직 자력에 의한 개달음이 용다는 확신을 가진적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불상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 보살상 앞에서 손을 비벼대며 일심으로 기도하는 아낙네들을 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대승전 아닌 칠성각과 삼성각을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는 스님들을 경멸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내게 몰아닥친 참담한 아픔도 겪어야 했던 나는 작은 불상앞에 경건히 기도하기도하고 허공을 향해 수없이 절을 하는 저들의 진심에 경의를 표하고 그 성의에 감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절에 가면 부처님께 큰 어엎드려 절을 올리고, 그 무량한 자비와 지혜를 찬탄하게 되고 가능한한 중생이 부루 부처님의 가피속에서 복되게 살게되기를 기원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이 학교를 향하는 것을 보면 반야심경을 외우며 가만히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한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때에도 부처님과 함께 있기위해 염주를 팔에 감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내자신이 되었다. 그런 삶이기에 보잘것 없는 이 승의 삶이지만 부디 부처님이 늘 내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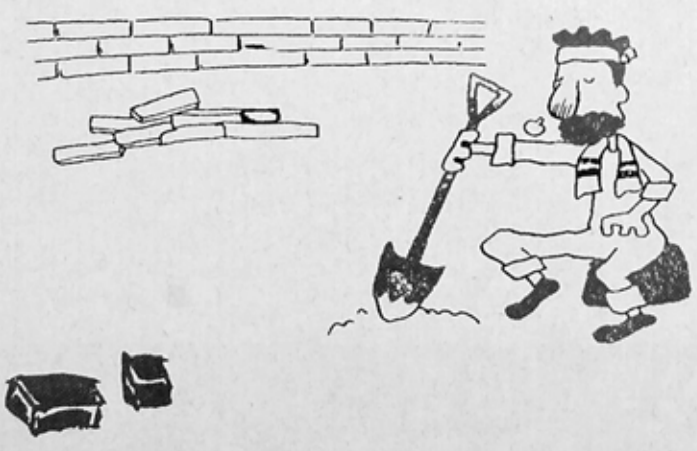
바로잡습니다

본지2호 2·3면 「창간을 축하해주신 분」명단중▲김동규 전 새한국당 대표는 전의원으로 ▲구천서 전의원은 현의원으로 ▲대한불교 관음종 사무총장 이흥파는 총무원장으로 바로잡습니다.화환에 ▲한국CTS 대표이사 김규석 추가합니다.

생활 속의 불교③



"집을 지을 줄 모르는" 목수가 있다면?



유능 한 목수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설계를 하고,
설계한 대로 집을 지어 들어가 살 수 있다.
단칸 초막을 짓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고대 광실을 짓고 싶으면 또 그렇게 지어서
집주인으로 들어가 산다.

우리 육신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누가 설계를 했고, 누가 들어가 사는가.
들어가 살기는 분명 내가 들어가 산다.
그렇건만 나는 내 집을 마음대로 설계하지를 못한다.
설계는커녕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아낸들 제 손으로 고치지도 못한다.
제 집인데도 제 맘대로 못한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주인 자격이 있는가.
내 집 하나도 내 의지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대서야
떳떳하게 주인이랄 수 있는가.

도대체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 한 의문과 연루된
삶의 비밀을 캐내지 않으면 안된다.
불법은 그 해결의 실마리다.

불법외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한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 86년 3월 설립
■ 대형 건설업체의 취약부분인
고질적인 방수 하자 보수공사 성공리 완료
■ 설립 7년 만인 93년 연간 약 45억의 공사 가능
■ 신방수공법, 특수도장 부문 등 각 건설업체로부터 각광
■ 100% 직영 처리
■ 기술 및 안전에 관한 철저한 교육 실시
■ 회사 설립 이후 철저한 무사고 시공 !

목표는 국내 최고 !!

성풍산업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의 29



내일을 여는 불자

유정길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환경운동은 우리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유정길사무국장은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본격 환경운동단체로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돼 각오가 새롭다고 말한다.

그가 수행처처럼 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자리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교계에서 첫번째로 환경운동을 시작한 곳이다.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3명의 간사와 2명의 사무직원 그리고 틈틈이 들르는 자원봉사원들이 그의 수행 도반들이다.

지난 91년 4월 제1기 「생태학교」를 시작으로 10여평 남짓한 1층 강의실을 거쳐간 이들이 3백여명. 이곳 생태학교를 통해 불교의 생명사상과 환경윤리등에 관해 교육되어진 회원들이 모여 '초록바람'이라는 실천모임을 만들어 매주 등산을 통해 산중턱에 매립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의 환경현장 학습도 함께 해왔다.

서구의 직선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을 개별화 시키는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유국장은 결국 모든 것은 돌고 돈다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진 동양의 불교가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말한다.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 너와 내가 하나라는 자타일여의 사상은 생명운동으로서 환경운동의 큰 밑거름입니다."

유국장은 그러나 아무리 사상적으로 훌륭하더라도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모든 불교의 진리는 강변에 불과할 뿐이라 생각, 환경운동에 선도적으로 발을 내디딘 불교환경운동의 기수다.

"환경운동은 파괴되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자는 관리주의 운동이 아닙니다. 환경의 파괴를 통해 우리 삶과 마음의 자세까지를 바꾸는 운동입니다."라며 생활세계의 전통과 지혜를 오늘에 다시 살리는 일이 바로 환경운동이라고 환경운동의 주체자로서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불교교육원에서 근무하는 부인 이지현씨와 함께 매주 일요일이면 서울 홍제동의 정보포교원을 찾는 유국장은 "법사로써 늙을때까지 불교내에서 활동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알짜배기 불자다.

앞으로 계속 세미나, 연구모임등의 학적성과를 토대로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인 유국장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등의 「종교지도자 환경 워크샵」을 지역별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민간환경정책협의회 운영위원,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인권환경위원회 실무운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유정길사무국장은 환경운동을 이끌어가는 자타가 공인하는 불교계의 대표적 환경 파수꾼이다.

〈이은자 기자〉

매주 산찾아 쓰레기 청소 생태학교 열어 환경 교육

교차로

봉선사 주지에 임명



운경스님(원로의원)이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에 임명됐다. 운경스님은 지난 1925년 태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자재암 흥룡사 주지 를 역임했다.

'시민협' 토론회 주재



송월주스님(경실련 공동대표)는 11월 3일 YMCA 의정부 다락원에서 열리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 단체대표자 세미나에 참석. '시민협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를 주제한다.

자비원 원장 취임



진철스님은 지난달 18일 통도사 자비원 원장에 취임했다. 현재 불교사회복지협의회장 직을 맡고 있는 스님은 교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 자비동산을 설립, 강릉유아원 강릉 시립복지원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공주금강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위탁 및 운영했으며 '도 시 군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대원력을 세우고 있다.

세종회관서 설치미술전



성륜스님은 오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설치미술전을 갖는다.

'차세대 경영~'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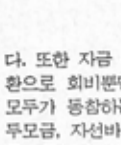
지광스님은 지난달 26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 간담회에 참석 '차세대 경영과 신문화 형성'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사자암 주지 취임

도각스님(전 해인지 편집장)은 상도동 사자암 주지에 취임 지난달 26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축하한 가운데 주지 진산식을 가졌다.



조계종 종정 표창 받아



전창열씨((재)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장)는 초발심자경문 치문 선요서장 금강경 기신론 원각경 화엄현담 등 승가대학의 전문교재를 솔관한 공로로 지난달 28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표창을 받았다.

추사연구 도서 발간



최순택교수(원광대, 미술사)는 최근 '추사 김정희의 서화' 연구서적을 발간했다. 이책에서 최교수는 추사 '김정희의 독특한 서예와 묵란도 산수도 등의 작품세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하여 추사예술의 성격과 양식적 특성을 다양한 도판과 더불어 예리하게 규명했다.

한중일 학술대회서 강연



송석구교수(동국대 부총장)는 지난달 26일 한국국민윤리학회주최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 학술대회」에서 '후기 산업사회에서 유교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위암 장지연상 수상

신봉승씨(방송작가)와 정운경씨(중앙일보 상무대우 편집위원)가 각각 제 5회 위암 장지연상 방송부문과 언론부문 수상자로 선정 11월 2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에서 수상식을 거행한다.

연꽃케익 전시 판매



정관수씨(불과회 회장)는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연꽃케익 실연및 판매 행사를 가졌다. 불과회가 개발한 6종의 상품중 연꽃케익을 선보인 이번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써 달라고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기탁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



김동흔씨(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사무처장)는 지난달 13일 국민제안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동흔씨는 '주택부금대출시 건물년수 등 제한폐지' 제안으로 이번에 수상했다.

재소자 참여극 '반달' 공연



조동희씨(은빛극단 대표)는 천안교도소 재소자들을 출연시킨 연극 '반달'을 지난달 22일 천안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했다.

소년재소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제시하고자 한 조동희씨는 이번으로 4번째 연극공연을 가졌다.

태국 관광효도 큰잔치

이성호씨(수미산 여행사 대표이사)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1차,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2차로 태국관광 효도 큰잔치를 갖는다.

회갑 고희를 맞이한 부모들을 위해 불교나라 태국에서 피로연을 열고 경해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이번 효도 큰잔치의 회비는 1인당 55만원.

구룡사 청년회 8대 회장

박남주씨가 구룡사 청년회 제8대 회장에 선출, 지난달 30일 구룡사 만불전에서 이 취임식을 거행했다.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을 순회하며 법회를 갖는 심월회는 지역주민의 법회동참을 유도해 호응이 높다.

탐 방

서울시청 심월회

서울시 공무원불자들의 모임인 심월회(회장 조정봉)는 '83년 5월 6일 동작구청에서 탄생했다. 45명의 구청불자들은 '불자로서 자비를 바탕으로 대민행정에 임하고,국민화합에 앞장서 국가와 불교발전에 주춧돌이 됨'을 다짐하며 목탁소리를 울렸다.

당시 행정기관 최초의 법회가 되었던 심월회는 구청 강당에서 봉행되는 월례 법회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관,민이 하나됨을 보여주었다. 법회때마다 국내에서 제일가는 법사를 초청하여 〈보살도〉를 비롯 휴대용 법회 지침서 〈불자수첩〉, 〈선가귀감〉 등의 경전 5만여권을 자체 제작하여 보급했다.

회원들간의 단합을 위해 사찰참배를 갖는가 하면 장례를 불교식으로 여법하게 치루어주었다. 5년전 합창단을 창단해 불을 통해 신심을 높였다.

관내 소외된 이웃에게는 성금을 모아 전달하며 불심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보여 주었다. 심월회의 법회는 발전을 거듭하여 1년만에 1천여 불자가 동참, 단일 직장법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작구청 심월회 불자들도 대부분 타지로 근무처가 옮겨졌다.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 요소요소에 심월회의 정신이 파져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심월회는 단지 동작구청으로만 머물지 않고 서울시 구청을 순회하며 법회를 보게 되었다.

"서울 공무원 5만명 가운데 불자임을 밝힌 이는 2천명에 불과합니다. 행정기관이 포교의 최대 사각지대인 것입니다. 더많은 공무원불자가 자부심을 갖고 신행에 임함때 국가와 불교는 동시에 발전할 것입니다."

심월회 창립당시부터 줄곧 회장을 맡아 공무원포교에 혼신을 쏟고있는 조정봉회장은 "앞으로 공무원불자회관을 건립하여 포교 및 복지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준열 기자〉

친절한 대민행정·경전보시 힘써

보살행이 쉼쉬는 현장 한국불교사회봉사회

군법당·고아원·양로원 위문

백혈병·심장병 어린이돕기 음악회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소리없이 보살행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선봉이 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내 이웃은 모두 한 가족」이라는 취지로 88년 발족된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문필녀 이하 '봉사회')는 지난 10월 16일 '심장병·백혈병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호암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으로 심장병과 백혈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어린이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다. 지금까지 매회 4명씩 8명이 봉사회로 인해 새 생명을 찾았다.

봉사회는 중원스님과 3백여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과 군부대 고아원, 양로원등을 방문, 월 1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또한 자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회비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가 등참하는 일일찻집 가두모금, 자선바자회 등의 행사를 마련, 소년소녀 가장세대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월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등 여러단체에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크게 의료봉사 및 위문봉사, 자선활동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20여명의 청년회원들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성남시 소재 자광원을 방문, 생활용품을 전달하기도 하며 청소, 말래등을 해주면서 부모형제처럼 말벗이 되어 서로의 끈끈한 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매월 22일에는 서울대 학병원에서 의료에 필요한 재료를 일일히 손질하는 노력봉사를 지원하는 한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포교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봉사회는 군인불자들을 위해 각 군법당 및 훈련소를 찾아 떡, 과일, 음료수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인 개개인에게 합장주를 걸어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효도공양의 일환으로 양로원을 방문해 할아버지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교도소, 재활원, 환경미화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갖이 한다. 봉사회야말로 부처님의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문필녀회장은 "부처님의 자비는 고통받고 소외받는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 주는것"이라며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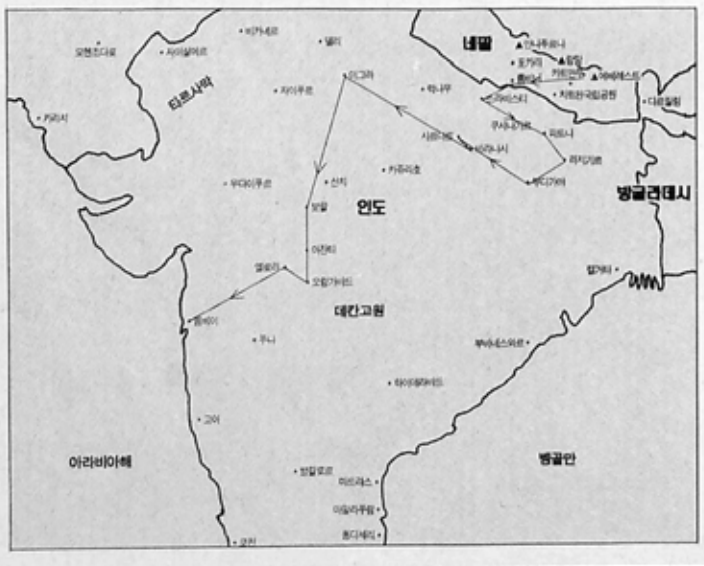
〈김중근 기자〉

불교 성지 순례

인도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요. 오랫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 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뜻을 전해드릴것입니다.

—순 례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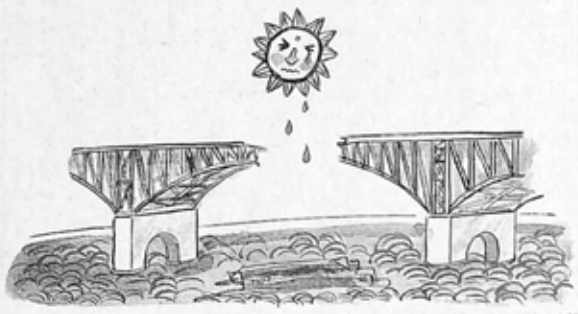


—순례일정표—

제1일	12시45분 대한항공 631편으로 방콕 향발
제2일	방콕—카트만두(수와이앰부넛, 라마불교사원 참배)
제3일	히말라야산(원숭이 사원, 쿠미르 사원등 순례)
제4일	카트 만두—룸비니 순례—소노울리
제5일	소노울리—발람푸르(기원 정사 순례)
제6일	발람푸르—쿠시 나가르(부처님 최후의 설법지, 열반지, 화장터등 순례)
제7일	쿠시나가르—바이살리(아난다 탑, 부처님 사리탑등 순례)
제8일	파트나—라자기르(죽림정사순례)—보다가야
제9일	브다가야(마하보디 대탑)—사르나트(녹야원 참배)—바라나시)
제10일	바라나시(갠지스강 유람)—아그라
제11일	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등 순례)—보사월
제12일	보사월—아잔타 석굴—오랑가바드
제13일	오랑가바드—엘로라—봄베이(비치 야경 관광)
제14일	봄베이에서 06:00시 대한항공 806편으로 서울 향발

- 동참금 : W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 신청금 : W200,000
- 출발안내
  - 제1차 순례 : 12월4일~12월17일(신청마감일 : 11월19일)
  - 제2차 순례 : 1월1일~1월14일(신청마감일 : 12월17일)
  - 제3차 순례 : 2월5일~2월18일(신청마감일 : 1월21일)
- 수속 준비 서류(인도·네팔 비자 포함)
  - —여권 미소지자 : 주민등록등본 3통, 여권용 사진 8장, 주민등록증, 인지대 : W45,0000
  - —여권 소지자 : 여권,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 사진 4장, 주민등록증 사본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아태관광 732—3200(代)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2 신문B/D 501호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❷

"잡념이 따르면 되는일이 없다"

무슨 일이든 정성껏 하라는 가르침

놀라운 사실이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사건이다. '우째 이런 일이' 란 투박한 말이 또 국민을 울린다. 한강의 다리. 성수대교가 48m가량 폭삭 내려 앉았다. 귀한 인명을 32명이나 앗아갔다. 끔찍한 일이다. 분노의 원성이 빗살로 내려친다.

우리는 왜 이리도 못난 사람인가. 다리 공사 하나 탄탄하게, 영구히 갈 것을 건설하지 못하는가.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다리를 건설하면 평균 수명이 50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수대교는 15년의 역사밖에 갖지 않았으니 32명의 연장생명이 있는 것이다. 어찌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가. 준비성, 침착성, 마감성이 병난 것이다. 하루 십만 5천여대의 차량이 왕래하고, 과적차량이 횡횡 치달리고 있으니 다리를 언제나 점검하는 준비성이 앞서 있어야 한다. 또한 침착하게다리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야물딱 마감성을 솥아 넣어야 한다.그저 적당히 대충해버리면 된다는 속단성, 안일성이 병폐인 것이다. 흔히 쉽게 쓰는 말이지만 백년대계가 그렇게 용이한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백년대계를 읊조리고 있지만 실제적인 일은 영망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제 자리를 찾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 앞에 서는 마음

불교의 용어 가운데 정진(精進)이란 말이 있다. 팔정도의 하나이다. 정정진(正精進)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정진은 한가지 일에 열과 성을 다하여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착한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산을 보지않고 그 일 자체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쉬운 일도 꼼꼼하게 어려운 일도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마감하는 것이다.

일을 바르게 하는 자세

〈正精進〉

자기에게 일이 맡겨지면 그 일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쏟아 넣어야 한다. 대충대충 얼기설기 일을 마무리 짓는 대강처리를 벗어나야 한다. 일 처리가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쳐져야 한다. 이것이 정진의 길이다. 깨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한한 청정성을 발양하여야 한다. 「항상 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 하여야 한다. 화두를 잡은 선객은 일체명상이 돈진하고 깨침의 빛살이 광배빛으로 솟아 빛날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에는 다음과 같은 교설이 있다. '두 사람이 같은 도시로 출발하는데 한 사람은 속력이 빠른 말을 타고 떠나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말을 타고 출발하게 되었다. 느린 말을 타고 떠나게 된 사람은 새벽 일찍 먼저 떠났기 때문에 앞서 그 목적 도시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와같이 재주와 기술이 뛰지더라도 열심히 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 이것은 참 좋은 교훈이다. 모든 일은 쉽게 할 수 있다고 덤벙 거리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조금 부족하면 그 부족을 성실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온돌방을 생각해 보라. 천천히 달구워진 돌은 쉬히 식지 않고 따뜻한 난방구실을 하지 않는가. 방안에다 낙엽을 지피면 바로 방안이 열기로 가득찬다. 그러나 그 낙엽을 다 태우고 나면 방은 차가운 한기로 가득한 것이다.

온돌방의 지혜

장작개비 몇 둥그리를 아궁이에 짚여 놓으면 그들돌이 천천히 열기를 품게 되고 구들돌 공간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게 되면 방안은 절로 훈기가 감돌게 된다. 이 얼마나 수승한 슬기인가.

우리 이제 조금씩은 슬기의 공부를 해야 한다. 왜 이렇게도 급속하고 시간에 얽매여 사는가. 세월이 말하여 준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 많은 것이다. 집을 짓건, 다리를 놓건, 공장을 세우던 간에 가만히 가라 앉은 마음으로 일을 대하여야 한다.

눈빛에 스친일, 손짓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음이 들어가는 일을 하여야 한다. 마음은 일체를 완성시키는 어머니인 것이다. 어머니가 성급하게 되면 아이들도 허둥된다. 침착한 '어머니가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면 아이들도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놀이도 즐겁게 된다.

성수대교의 참상, 이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나 시청 감독청이나 모든 사람들이 침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안전사고는 안전하고 완벽하게 마음을 잡아 한 일이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정정진, 이것은 사람의 생활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수행 지침인 것이다.

나 없는 곳에서 「나」를 찾는 법관

산문밖의 禪

박 준 수 부장판사 〈서울 민사 지방법원〉



◇ 현상계의 사물을 부정하고 관조하여 진실을 찾는 박준수 판사.

「생의 과정속에서 우리는 나(我)를 세워 나를 행위 주체로 간주한다. 내가 있어서 그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주재해 왔다는 것이다. 수백의 구슬이 한줄의 실에 꿰어져 목걸이가 되듯이 삶의 모든 과정은 나라는 실로 인하여 나의 삶으로 엮어진다. 그러나 거기에 행위를 주재하는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서울 민사지방법원 51부 박준수 판사는 생활과 선을 따로 두지 않는다. 선속에서 생활하고 생활이 곧 선의 과정이다. 그가 생활속에서 길어 올린 상념의 단상들을 정리한 글에는 숱한 질문과 대답이 교차되고 있다. 화두를 풀어가는 수행의 단면을 보는 듯이.

「거기에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것이 박판사의 화두이다. 그는 자신이란 실체에 대한 탐구로 생활선을 닦고 있다.

그 닦음의 과정은 21년째를 맞은 법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해서 금척(金尺)의 바른 사용을 가능케 한다.

-판사님은 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박준수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가장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마음속의 박준수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없는 곳에 있지요

「나」라는 실체를 지배하는 마음, 그 마음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박판사의 수행의 전부다. 그는 "내가 없는 곳에 있는 마음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그것을 보려는 노력을 쉬지 않는다면 어렵잖게 찾아낼수도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덧붙인다.

현상계의 인식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그 절대적 자유에 대한 박판사의 탐구 의지는 자천명의 연륜만큼이나 깊고 그윽하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서류검토와 재판정에서의 판결들. 그 일상을 기쁘게 유지해 나가며 주말이면 북한산을 오르고 산사의 법당에 들어가 참선을 하는 가운데 그의 삶은 산사로 난 오붓한 황토길을 닮아가기도 있다.

"인간이 아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관념적 지식일뿐, 실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앎의 범위가 넓다고 해도 결국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실상의 정체를 알아내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요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불교관을 찬찬히 풀어 내는 박판사는 이미 법관도, 생활인도 아니다. 어느 조사단에 오롯이 않은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버리는 마음,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실체 속의 밝은 마음 하나만 지키고 살면 광생이 최상승의 수행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현상계에 대한 일차부정과 그 부정에서의 진리파악이 곧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찾는 법」이라고 강조한다.

「나라는 것은 벌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실재하지 않는다.」

박판사의 「나」에 대한 부정은 철저하다. 현상계의 허상을 부정하지 않고 실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인간이 아는 것들은 관념적 지식일뿐 실상은 아닙니다. 앎의 범위가 넓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의 정체를 알아내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요체라 생각합니다."*

는 신념 때문이다.

나에 대한 부정에서 나의 진면목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사고의 틀을 부정하는 쪽으로 확대돼 나간다.

「생각은 행동을 수반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주재할 수가 없다. 우리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 슬픔과 기쁨, 분노와 좌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음대로 있게 할수도 없게 할 수도 없다.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다. 선택할 수가 없다. 우리는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는 그 내가 선택한다고 믿는다」

그의 이같은 글은 판사로서의 바른 길을 걷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박판사는 '나'라는 착각의 영역을 벗어난 자리에서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 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21년간 한번도 후회스런 판결을 내린적이 없다.

-판결의 순간에 자신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을텐데요.

▲쉽습니다.

팔딱한 그의 대답 뒤에 숨어 있는 스스로의 수행 의지는 뭐라고 덧붙여 설명할 필요성을 뒤덮어 버린다. 관념의 세계에 도사린 허상들을 제거하는 안목이란 다름아닌 밝은 마음의 자리에서 솟아나는 지혜의 샘물인 것이다.박판사는 그의 단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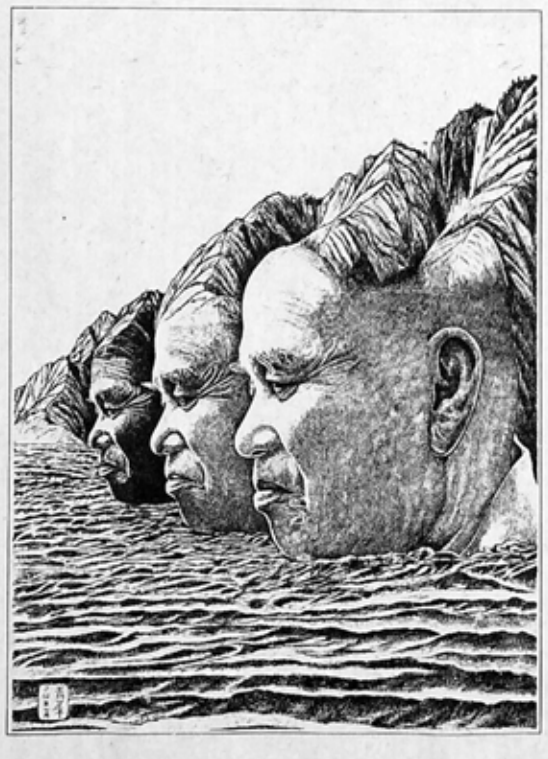
「내가 없다는 깨달음은 설령 우리가 공포와 분노를 만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한다.그것을 나 없이 경험하게 한다 극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비로소 관찰이 관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마음속의 박준수가 판결을 내리는 거죠"

관조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가능하다는 박판사의 결론. 그 결론은 다시 최초의 의문인 「거기에 나 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와 다를 것이 없다. 하나의 원이다. 처음 자리도 끝자리도 없이 여여하게 이어진 그러나 분명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 것이다. 내가 있음을 부정하고 거기서 나의 실체인 마음을 찾아내는 과정속에서 박판사는 이 시대의 양심과 정의를 지켜가는 법관으로 서 있다.

〈임연태 기자〉

• 성철큰스님 종정취임 법어 **山은山 물은 물의** 사자후를 청봉스님이 삼법인 선화로 표현한 불기2531년도 불미전금상 수상 작품임(동국대학교 총장상)



작품규격:가로 365×세로 543(㎜)

성철스님 무진 법문 선화 소장 안내

• 불교의 근본사상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데 있다.
•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는 것은 방편일뿐 현실이대로가 절대요 극락이다.
• 사찰은 불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지 불공하는 곳이 아니다.
• 불좌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 법당에 계신 부처님 보다 먼저 불우한 이웃돕기에 솔선하는 것이 참불공임을 알아라.
•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다.
• 내가 신도들에게 삼천배를 시키는 이유는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자기성찰의 이익을 성취하게 함이니라.

—성철스님 법어중에서—

성철큰스님의 열반 1주기를 추모하며 큰스님의 선사상을 널리 고양하고자 법어중 山은 山 물은 물을 한국선화의 대가이신 청봉스님의 역작 삼법인 선화를 영인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성철스님 유훈대로 선화보급의 이익금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10점 1구좌 작품대금:₩60,000
• 온라인 계좌

농 협:053—02—064700 (복지회 권오성)
국민은행:006—21—0567—711 (복지회 권오성)
우 체 국:010579—0052194 (복지회 권오성)

※입금후 연락주시면 작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급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문 사회복지회
전 화 : (02)496—5293 439—6129
FAX : (02)208—7975

신라시대 승관 모두 20여종

정병삼교수, 금석문자료 근거 체제·역할 밝혀

금석문을 통해 신라시대의 승관제도를 체계적으로 밝혀낸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같은 논문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한국고대 금석문연구의 재검토」란 주제로 열린 한국사 학술회의에서 정병삼교수가 내놓았다.



◇정병삼교수

정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통일신라 금석문을 통해 본 승관제도」란 논문을 통해 기존 문헌고증을 통한 연구의 틀을 벗어나 금석문 자료를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금석문의 중요성은 현존사서가 수록하지 못한 자료를 새롭게 당대의 의식으로 알려준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의의는 특히 자료가 영세한 삼국이나 통일신라시대일수록 더욱 커진다"며 금석문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교수는 또 "개체 수로 볼 때 통일신라 시기의 가장 풍부한 금석문 자료는 승관제(僧官制)와 관련된 자료"라고 지적하고 금석문 자료에 보이는 신라 승관제의 제도적인 편제와 실제 운용을 분석했다.

진흥왕이 법흥왕대에 공인된 불교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흥륜사 등의 사찰을 창건하고, 12년(551) 고구려에서 망명해 온 혜량(惠亮)법사를 국통(國統)에 임명함으로써 승관제가 처음 시행됐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이후 교단이 중앙은 물론 지방에도 크게 확산된 신라 중대에 들어서는 사천왕사를 비롯한 성전사원(成典寺院)을 중심으로 교단을 운영했으며 지방 교단은 주통(州統)과 군통(郡統)을 중심으로 통제해 나갔다는 것이 정교수의 분석이다.

한편 금석문은 신라대에 건립된 것만 해도 20여종의 자료에 제작과 관련된 승관 명단을 볼 수 있으며, 10여종의 자료는 약 20가지의 승관제 운용상황을 전하고 있다. 정교수는 이들 금석문 자료를 정리, 크게 네 부분으로 승관제의 양상을 분류했다.

우선, 국가적 사업인 신종(神鐘) 조성이나 황룡사탑의 중수에 참여한 최고위 관원으로 구성된 성전(成典), 그리고 중앙 상위 승직자와 조형물 조성에 관련된 관리 책임자 부류인 국통·대통·주통·정법화상(政法和尙)의 승직들, 세번째로는 사원의 상위 관리자인 상좌(上座)와 원주(院主)·전좌(典座)·유나(維那)·직세(直歲)의 삼강(三綱) 직제, 네번째, 관리 실무자인 사(史)와 조성을 담당한 박사 및 기타 부류 등이 그것이다.

〈김재경 기자〉

승관제도 연구 얼마나 됐나

직·간접 관련 논문 10여편

지배층에 끼친 영향 분석 필요

승관제도와 관련한 학계의 연구는 그다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승관제도란 승려를 공인된 관직에 두어 정치적 역할을 하게 한 제도이다.

'국사', '국통' 등의 호칭들이 이 승관의 직급인 셈이다. 이같은 승관의 전통은 고대사회, 불교 전래이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승려가 지배계층의 정치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승관에 대한 연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승관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논문으로는 인환스님의 「신라 승관제의 설치 의의」(82년,불교학보)등 몇편이 있을 뿐이다. 이외에는 승과제도 또는 신라·고려시대의 승려행정을 밝힌 논문이 10여편 발표된 것으로 집계된다.

승관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보이는 논문들은 아래와 같다.

▲「신라 승관제의 설치의 의」 채인환(82,불교학보)

▲「신라 국가불교의 형태와 구조」 홍윤식(92,가산문고)

▲「고려시대의 승과제도와 그 기능」 허흥식(76,역사교육)

▲「신라 공인(公認)불교의 사상과 그 정치사적 의미」 김두진(87,지식산업사)

▲「초기한국불교교단사의 연구」 불교학회 (86,민족사) 등.

전국불교학술발표회

자유주제 논문 총 13편

11일 동국대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오는 11월11일(금) 오전 10시 동국대 동국관 L301에서 제22회 추계전국불교학술발표대회를 갖는다.

자유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원광대 한종만교수의 '원효와 노자사상과의 회통' 등 모두 13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원효와 노자사상과의 회통(한종만) △백제 의영(義榮)의 유식사상(이만) △한국불교청소년복지에 대한 연구(이경호) △고대인도 사유전통에서 본 철학과 종교의 의미(곤오만) △나응혜근의 법맥(이철헌) △초기계율의 성립에 대한 문제(신성현) △조동(曹洞) 종명과 개조의 사상(박문기) △오시팔교(五時八敎)와 삼종교상(三種敎相)(지창규) △모자이혹론(牟子理惑論)에 나타난 유·불의 갈등(나기성) △후기중관학파의 정의(定義)에 대하여(이태승) △한국에서 불교와 유교의 만남과 그 관계변화(윤영해) △조선불교청년회 연구(김광식) △불교와 현대여성의 역할(허정희)등. 〈차주상보〉

「원효사상」 학술회의

18,19일 타워 호텔서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은 오는 11월18, 19일 이틀간 타워호텔에서 '원효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갖는다.

「우리는 오늘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란 부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국내·외 7명의 학자가 발표자로 참가한다. △버나드 파우레교수(스텐포드대) △허버트 퓌르트교수(호보기린학회) △텟소 야마오리교수(일본학 국제연구소) △로버트 버스웰교수(U.C.L.A.) △이부영교수(서울대) △이기영원장(한국불교연구원) 등이 발표에 나섰다.

회당학회 심포지움

대전 신덕심인당서

회당학회는 지난 29일 대전 신덕심인당 강당에서 제3회 회당사상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혜정스님(유가심인당 주교)이 「종조의 불타관」을 곽만연교수(동아대)가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회당」을 임채찬교수(육군3사관학교)가 「회당의 충효관」을 조용헌교수(원광대)가 「한국근대사상사의 맥락에서 본 회당」을 김호성강사(동국대)가 「천수경과 회당의 심인불교-육자진언과 참회를 중심으로」를 각각 발표했다.

"대승불교로 세계화운동 벌일때"

일·중 학술교류회의서 권기종 교수 주장



◇권기종교수

일중불교학술교류회의가 「동아시아 불교 교류에 관하여」란 주제로 지난 22, 23일 일본 교토시 불교대학 사조센타에서 열렸다.

이 학술회의에서 동국대 불교대학장 권기종교수는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동북아 불교의 역할」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권기종교수는 이자리에서 세계불교에 대한 개괄적 현상을 살피고, 동북아불교의 특징과 세계 불교사속에서 담당해야 할 불교사적 역할을 제시했다.

권교수는 한·중·일 불교의 특징을 대승불교사상에 기반을 두고 한자문화권속에서 한문경전을 사용하는 점으로 파악, "대승불교는 이타(利他)의 중생제도가 제일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대 동북아 불교가 당면한 최대의 사업이 '불교의 세계화 운동'이라는 것이 권교수의 주장.

이와관련 권교수는 "어느 지역, 어느 민족에게도 동화될 수 있고, 인간의 다양한 직업과 지적 수준에도 구애받지 않는 포용성을 지닌 대승불교가 불교의 세계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네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불교의 국제조직을 위한 범국가적 포교기구 설립 △중요 대승경전의 영문번역과 출판 △포교사 양성 △범국가적 재단설립 등이 그것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중·일 불교가 상호 정보교환의 차원을 넘어 세계불교의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평이다.

구마라집 탄생기념 국제학술회의

출생지 신강서…중국정부 이례적 지원

불경의 최대번역가인 구마라집 탄생 1650주년 국제학술회의가 지난달 8일 그의 탄생지인 중국 신강성 쿠차(庫車)에서 개최돼 불교학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구마라집과 중국문화'를 주제로 3일동안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중국불교와 동아시아불교에 있어서 구마라집의 위상에 관한 논문 △구마라집의 문헌과 번역에 관계된 논문 △구마라집과 그 시대적 배경 △구마라집의 사상, 교학 △구마라집과 석굴예술 △구마라집에 관계된 불교문물에 관한 논문 등 30여편이 발표됐다.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다수 참석, 논문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구마라집에 관한 학술회의는 이미 93년 일본의 중외일보 주최로 교토에서 거행된 적이 있으나, 그의 출생지에서 열리기는 처음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측이 이 학술회의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신강성 위그루자치구 문화청과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및 아주태평양연구소, 중국불교협회, 신강성사회과학원, 신강성불교협회, 신강루차석굴연구소 등 중앙정부는 물론 자치주정부, 불교관계단체가 망라되어 공동주최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구마라집(344~413년 또는 350~409년)은 현장 이전 구역(舊譯)시대의 대표적 번역가였다. 구마라집은 서역에 있을 때 이미 여러가지 외국어에 통달했으며 오랫동안 중국어를 배워 장안에서 역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곡식·채소를 먹는것도 살생이 되나요

문 불가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채소를 먹는 것도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산 북구 감전동·김해덕)

답 우주 만물에 생명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물이나 공기라면 우리는 생명 없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체가 생명체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쇄적으로 먹고 먹히고 고리를 이루며 살게 되어 있기에 차원이 낮은 것은 높은 쪽에 먹히게 됩니다. 진리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말고 모두 자신의 생명, 나의 일부라고 여겨서 늘 감사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 몸을 살려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존재가 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지요.

먹는 입장에서 보면 한 생명체를 죽이는 일이야말로 끔찍한 일이지만 낮은 차원의 것을 높은 차원으로 빨리 진화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먹는 대상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먹히는 대상도 그것이 자기의 무명을 벗겨 진화시키려는 자비로 알아 기꺼이 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에서 보면 먹고 먹히는 이치가 그러하니 어찌 취미삼아 사냥이나 낚시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전생에 닦은 신통은 공부가 필요 없는지

문 전생의 업이 금생에도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 신통(神通)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전생에 닦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생에 영어권에서 살았다면 금생에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는지요? (서울 강남구 신사동·최현재)

답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닦은 게 없어서 몸을 나투어 다시 닦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탑을 쌓아 올리는데 기단을 짓고서 다 쌓았다고 할 건가요. 2,3층 쌓고 다 쌓았다고 할 건가요.

전생에 공부를 잘 했다 하더라도 금생에 다시 공들여 쌓아야 잘 쌓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전생에 공부한 인연이 있어 남들보다 빨리 문리가 터져서 하나를 배우면 열가지를 알게 되는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5층 탑이 9층 되고 13층 되게 계속 쌓아 올려야 진화하는 것이지 전생에 닦았다고 가만히 있겠다면 금생에 태어난 의미는 어디로 갑니까? 과거가 곧 오늘이니 그런 상념 버리고 부지런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귀신이란게 정말 있습니까

문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 강남구 도곡동·권순심)

답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아주 용하다는 사람이 용해는 물에 빠져 죽을 운세니 물 가에 가지 말라'고 했다면서 걱정을 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마음속으로 물귀신을 겁낸다면 물귀신한테 봉변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얼마 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물가에 가지않고 조심했는데도, 그만 물 뿌린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못 쓰게되어 여러 달을 누워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난 거기에 얽매여 노예처럼 지냈으니 얼마나 딱한 노릇입니까.

부처님 공부는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어찌 부처님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주인공 자리에 맡기고 관하는 도리는

문 스님께서는 '일체를 주인공 자리에 맡고 맡겨라. 그리고 관하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김종호)

답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쌀을 깨끗하게 씻어 밥 지어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하겠지요. 그래야 밥 맛도 알고 배도 부를 겁니다. 그런데 해 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먹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를 있게 한 근본자리에 모든 걸 맡고 맡기는 작업부터 해야만이 정말 청정하고 신선한 도리를 알게 된다는 것 입니다. 주인공을 맡아자면 나를 형성시킨 주체, 즉 나무로 치면 뿌리에 해당됩니다.

부모미생전의 자리, 나의 근본이 주인공인데 옛날 어느 선사께서 하루 종일 하찮은 일까지도 주인공에게 묻고 대답하며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나'라고 하면 내 육신과 의식작용을 '나'인 줄로 알지만 참나로 변하는 그 '나'가운데 어느 때의 '나'를 진짜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나'를 인식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나'를 세우기 이전의 근본자리,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돌려줘 놓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오래 떨어져 지내던 아비와 자식이 상봉하듯이 참나를 상봉케 됩니다.

억만장자가 끼니를 걱정한다는 뜻은

문 현대불교신문 창간호에 실린 생활속의 불교①에 '억만장자가 끼니를 걱정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서울 은평구 갈현동·최세경)

답 마음 속의 보화에 관한 귀절인 것같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엄청난 보배가 있습니다. 흙 속에 진주가 묻혀 있듯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통장에 수십억원을 넣어 둔 것과 같은 셈이지요. 그런데도 다들 가난하다, 없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발견하려는 것이 불법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공부입니다. 제 마음 속에 무궁한 보화가 있는 줄 모르고 전전긍긍 하면서 살고 있으니 억만장자가 끼니 걱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제 3의학 시대를 여는 치료기

초장파 치료법으로 견디기 힘든 통증 정말 사라진다!

침구문화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드디어 제1의학 (약물요법)과 제2의 (물리요법)에 이어 초장파, 온열, 전기요법의 등장으로

소망 의료용치료가 해결해드립니다!

- 잠을 많이 자고나도 피곤이 계속 남는 분
- 신경이 곤두서고 짜이오지않아 괴로우신 분
- 전신, 목통, 요통,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 동어리스 고혈압, 동맥경화로 고생하시는 분
- 월 1회 이상 안마를 받아야 하는 분
- 수험생이나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싶은 분
- 무기력하고 정력이 약한 분
- 걷기힘든 정도로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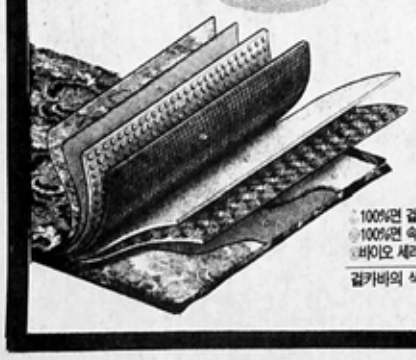
현대문명병으로부터 탈출시켜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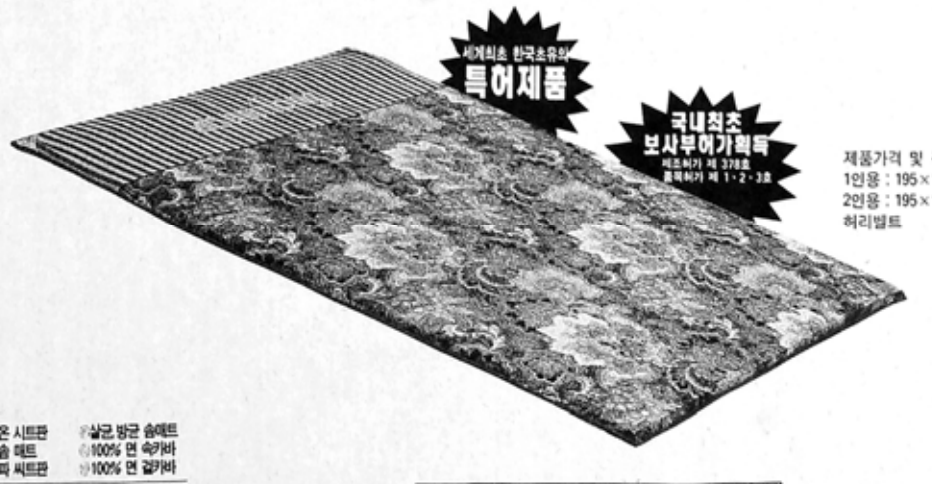
초장파+온열+전위 효과!

1. 혈액순조 (동맥경화, 중풍, 고혈압, 저혈압, 관절염)
2. 근육 이완(팔, 다리, 어깨허리)
3. 통증 완화(신경통, 요통, 관절통, 견비통, 근육통)
4. 당뇨, 신장염, 방광염



신경통 / 근육통 / 요 통 / 관절통 / 견비통 / 혈액순환





제품가격 및 규격

1인용 : 195×107㎝	소비자	현금 특가	685,000
2인용 : 195×135㎝	〃		985,000
허리벨트	〃		198,000

국내외 의료기관의 임상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초장파전위(음이온)치료기

대학병원 임상결과 5회만에 96%, 50회에 92%라는 놀라운 유효율을 기록

효능·효과 : 혈액순환 촉진, 통증완화, 근육이완

적응증 :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요통, 견통

-이상은 보사부허가조건 입니다.-

ㄱ:100%면 겉카바 ㄴ:음이온 시트판 ㄷ:살균 방균 솜매트
ㄹ:100%면 속카바 ㅁ:살균솜 매트 ㅂ:100% 면 속카바
ㅅ:바이오 세라믹 솜 ㅇ:초장파 씨트판 ㅈ:100% 면 겉카바

겉카바의 색상은 계절에 따라 다소 변경될수 있습니다.

남·여 영업사원모집

제조원 : 소망의료기(주)

주문처 · 서울 208-7974·75 · 부산 412-9251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2)

▩辦道具 須儉約知足
(관도구하되 수검약지족하고)

齋食時 飮啜不得作聲
(재식시엔 음철부득작성하고)

執放 要須安詳 不得擧顔顧視
(집방엔 요수안상하고 부득거안고시하며)

不得欣厭精麤
(부득흔염정추하고)

須默無言說 須防護雜念
(수묵무언설하고 수방호잡념하며)

생활도구를 가려 쓰되 모름지기 검약하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공양할 때에는 후루룩 쩝쩝 마시는 소리, 씹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고 수저나 그릇을 다룸에 있어서는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레 다루며

고개를 들어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말고 맛 있는 음식은 반기고 거친 음식은 싫어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모름지기 공양 중에는 말을 하지 말며 잡념이 일지 않도록 심신을 단정히 하고

▩須知受食 但療形枯 爲成道業
(수지수식은 단료형고하여 위성도업이라)

▩瞻敬尊顔 不得攀緣異境
(첨경존안하되 부득반연이경하며)

須知自身罪障 猶如山海
(수지자신죄장이 유여산해하여)

須知理懺事懺 可以消除
(수지이참사참으로 가이소제하며)

深觀能禮所禮 皆從眞性緣起
(심관능례소례가 개종진성연기하고)

深信感應不虛 影響相從
(심신감응불허하야 영향상종이라)

(앞념으로)부처님의 거룩한 얼굴을 우러러 보되 다른 경계에 끄달려(형상으로 보아)얽매여선 안된다.

모름지기 자신의 죄·업장이 마치 저 산 같고 바다 같은 줄 알되

모름지기 이참·사참으로 이를 녹일 수 있음을 알라(모름지기 죄업엔 본래 자성이 없어 오직 삼독심·번뇌 망상의 생각따라 일어 난 것임을 깊이 관하여 그것이 나온 자리에 돌락 놓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 사무치게 느끼면 이로써 가히 죄업이 소멸될 수 있음을 알라).

예배 하는 자신과 예배 받는 부처가 본래 둘이 아니어서 다같이 진여성품으로부터 인연따라 나툰 줄을 깊이 (믿고) 관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중생과 부처가 둘 아니게 감응함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 물체에 그림자 따르고 소리에 메아리가 서로 좇아 오는 것 같음을 깊이 믿을 지어다.

생활도구 아껴쓰며 만족할 줄 알아야
음식먹는 것은 도업의 성취를 위한것

須念般若心經 觀三輪淸淨 不憚道用
(수념반야심경하고 관삼륜청정하여 불위도용이라)

赴焚修 須早暮勤行 自責懈怠
(부분수하되 수조모근행하여 자책해태하며)

知廚行次 不得雜亂 讚誦祝願
(지중행차에 부득잡란하며 찬패축원하되)

須誦文觀義 不得但隨音聲 不得韻曲不調
(수송문관의언정 부득단수음성하며 부득운곡부조하며)

음식을 받는 것은 다만 이 몸뚱이 말라 시드는 것을 다스려 도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 줄을 잘 알아야 하며,

모름지기 반야심경을 호념하되(모름지기 물질과 마음이 둘 아닌 줄을 깊이 관하되) 무주상 보시의 청정함을 생각하여 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할 것이다.

향 사르고 예불 올릴 때는 모름지기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않게 스스로 늘 채찍질하고 대중의식을 행할 때는 어수선하지 않게 하며 범패하고 축원 함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글을 외어 참 뜻을 관할지언정 단지 소리를 따라 외지 말고

소리와 곡조가 고르지 못하게 해서도 아니 된다.

▩居衆寮 須相讓不爭 須互相扶護
(거중료하되 수상양부쟁하며 수호상부호하며)

愼諍論勝負 愼聚頭閒話
(신쟁론승부하며 신취두한화하며)

愼誤着他鞋 愼坐臥越次
(신오착타혜하며 신좌와월차하라)

대중 방에 거처할 적에는 모름지기 서로 양보하여 다투지 말고,

서로 간에 북돋우고 도와서 옳으니 그르니 논쟁하여 승부 가리기를 삼가하라.

또한 머리 맞대고 모여 양아 한가히 쑥덕거리지 말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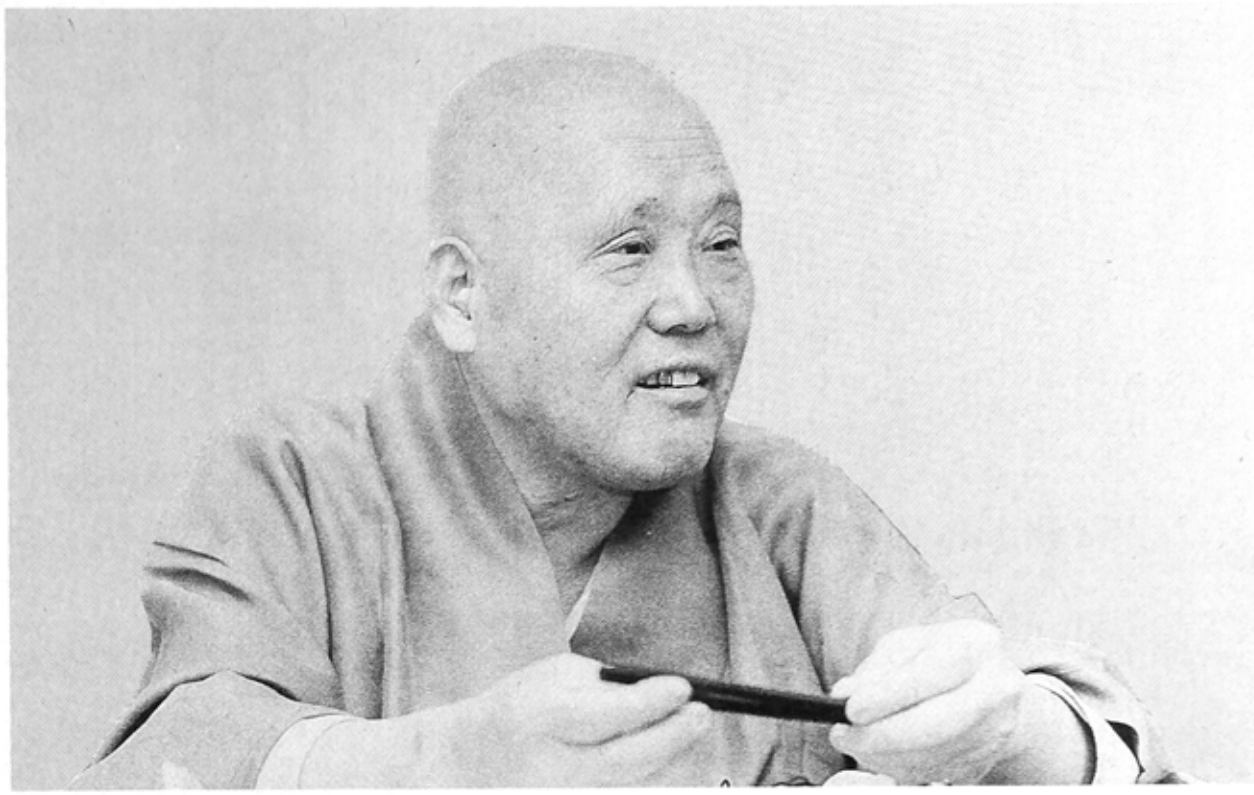
다른 이의 신발을 잘못 신을 정도로 들뜨거나 예의를 몰라서는 안되고 자리 잡아 앉거나 누울 때도 차례를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龍 眼

바로잡습니다. 제2호 8면 다시푸는 경서의 한자 본문 끝행의 「범전장」은 봉존장(逢尊長)의 오식이옵기 바로 잡습니다.

지상 법석

"내 모습 비춰보면 부처님 보여



승찬 스님 <송광사 방장>

또 한철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자연의 이치는 어김이 없습니다. 우주의 대자연은 제 갈길을 어김없이 가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변함없이 서 있고 개울물 흐르고 바윗돌들이 아름다운 저산은 산이기에 앞서 대자연입니다. 그래서 저 산에서도 대자연의 순리대로 끝없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지고 하는 것도 대자연의 말없는 변화고, 산이 변화속에 사시사철 모양을 바꾸는 것도 대자연의 호흡입니다. 해와 산과 나무와 개울물만 자연인 것은 아닙니다. 우주 속의 모든 것이 자연입니다. 대지연인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자연 속의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소자연입니다. 우주의 대자연과 다를 것이 없지만 소규모의 자연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대자연 속의 소자연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소자연 말입니다.

주부님들이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있어 큰 살림이니 작은 살림이니 나눠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살림이나 작은 살림이나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은 다 갖춰야 살림살이가 되는 법이지요.

마찬가지로 대자연이나 소자연이나 갖출 것은 다 갖춰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소자연도 대자연과 마찬가지로 살아야 합니다. 대자연의 말없는 흐름과 같이 인간도 원칙을 무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야 편안한 것입니다. 대자연을 버리고 소자연인 인간이 편하게 살 수는 없다는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과 소자연

대자연을 정복한다는 것이나 보호한다는 것도 소자연 단속이 앞서야 가능한 것입니다. 소자연인 인간은 자연스럽지 않은데 대자연을 정복하거나 보호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소자연을 못 다루면서 어떻게 마음대로 대자연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소자연인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소자연인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일까요. 소자연의 완성이 곧 대자연의 완성인데 어떻게 소자연을 완성 시켜야 하느냐 이 문제를 풀어 낸다면 대자연도 없고 소자연도 없는 대각의 경지로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자연의 완성 다시 말해서 나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참선을 해야 합니다.

대승적 수선(修禪)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승적 수선이란 무엇입니까. 대승적으로 선을 닦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완성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그런 선을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나 역대조사 여러 큰스님들의 길을 오늘의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의 성품과 행실을 돌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반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소자연을 밝은 눈으로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반성은 반조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돌이켜 보며 제 사는 길을 돌이켜 보고 완성의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비추는 일 이야말로 나의 진면목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참선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는 시간이 따로 있을 수 없으니까요. 시시각각 하루 스물네시간. 이를이면 마흔여덟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자신을 비추는 반조의 시간이요, 참선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모두 반조의 시간이요, 참선의 시간이 되야 합니다. 반찬거리를 사러 가서도,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한낱 몸뚱이의 움직임일 뿐이고 그것을 알면 인간의 생명을 가치있게 이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권투선수가 상대편과 권투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운동경기 입니다. 그러나 그 운동경기를 하는 선수가 자신의 행위를 비춰보지 않고 상대편을 무작정 이기기만 하려 한다면 그것은 싸움질이 될 뿐, 운동경기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조하는 것, 돌이켜 자신을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아차산영화사
부설(관인)영화 유치원
회주 송월주
대중일동
성동구 구의동 산 9
☎ 444-4321, 7215

만의사
주지 정락
총무 성직
노전 응진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 (0339)72-6005

직지사 대구 수성구 포교원
원장 도일
대구 혜명회 신도일동
부산 혜명회 신도일동
대구직할시 수성고 범어2동 171
☎ (053)754-8629

무애원 포교당
원장 설봉
신도일동
영등포구 신길6동 36-1
☎ 846-2156

연화정사
주지 정명
신도일동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255-1
☎ 887-6458

삼선포교원
삼선승가대학
강원 주장 지묘 순광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55번지
923-0582, 922-9652
보탑사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곡리 483 보탑산
☎ 0434)33-0206

재단법인 선학원
해운정사
조실 숭산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2
☎ (051)746-2256

화계사
조실 임제
신도일동
도봉구 수유1동 487번지
☎ 902-2663, 903-3361

지상 법석

살아있는 지금이 참선의 시간"

알아 보는 것, 이것이 참선인 것입니다.

참선은 화두만 붙들고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란 것에만 붙들려 있으면 운동선수가 싸움질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자신을 반조하라

뛰어 넘은 생각. 그 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참다운 운동하는 자세이듯 참선의 바른 자세도 화두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면목을 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만 하나 옳게 들고 있으면 그것이 부처되는 길입니다. 또 한 생각을 잘못 들고 앉아 있으면 한낱 중생의 길을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옛 조사스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바로 갖고 들어 가는 것이 뭐 그리 어렵냐' 고 말입니다. 한 생각 바로 들어가는 것이 부처라 했으니, 32상 80종호를 다 갖춰야 부처가 아니고 한 생각을 바로 갖춤으로 해서 부처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니 한 생각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알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나를 돌이켜 보는 반조의 순간은 눈 깜빡할 사이가 아닙니까. 한 생각을 다 잡아 지니고 나를 비추는 일을 애기

금강경에 나오는 한 말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 바로 여래를 보는 것이란 뜻인데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이 부분이 이상해서 많이 생각 했는데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봐라' 는 것은 곧 집착을 버리란 뜻입니다.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결국 그 말이라는 형상에 집착되어 의미를 못밝히는 것입니다. 형상을 보면서 형상이 아닌 것을 보려면 형상에

사리불 존자가 나무 밑에 앉아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유마거사가 바삐 지나고 있었죠. 꼼짝도 않고 앉아 있는 사리불을 보고 유마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었겠지요. "여보시오, 사리불 존자"하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사리불이 눈을뜨고 "아니, 처사님 어디를 가십니까"하고 인사를 했

참 불자의 삶

겠지요. 유마는 "존자님, 참선 하느라고 지나가는 사람도 못보고 도대체 참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하고 물었

> *그 노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나가 부처님을 믿었는데 소에 받히다니 예끼 이제는 절에 다니지 않을테다' 라고 했습니다. 잘 되면 좋아하고 못 되면 싫어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는다고 해서 모두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는 다는 것이 그저 뭐든지 초월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아들도 딸도 모두 출가해 스님이 됐고 자신도 열심히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노파가 길을 가는데 앞에서 서 있던 소가 앞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랄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절에 나가 부처님을 믿었는데 소에 받히다니 예끼 이제는 절에 다니지 않을테다' 하고 했습니다.

잘 되면 좋아하고 못 되면 싫어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를 구별해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분별심이 있어서는 바른 길에서 참선도 못하게 되고 바른 불교를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형상을 보지말고 형상 아닌 것을 보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형상도 형상아닌 것도 봐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둘로 나눠놓고 보느니 안보느니 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집착입니다. 그 집착의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면 끝내 밝은 마음을 못 얻게 됩니다.

집착 속에 헤메는 사람은 절대 자신을 비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노파가 소에 받혔다고 절에 안나가면 어

「이뭣꼬」등 천칠백 공안이 다 무엇입니까 살림살이 크건 작건 갖출 것은 다 갖춰야

가 커서 어른이 되고 늙고 죽어가듯 끝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나의 실제 모습, 진면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는 대승을 실천해야 합니다. 옛날 삼장법사가 인도를 왜 갔습니까. 도를 구해서 인도를 갔고, 그 목적은 바로 대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승은 나 혼자만을 구하는 도리이고 대승은 나와 동시에 내 이웃을 같이 구하는 도리입니다. 물론 내 자신이 부처님 마음과 같이 돼야 하겠지만 나혼자 부처님 마음같이 되고나서 아들, 딸과 이웃은 다 어쩌란 말입니까.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이 돼야 합니다. 소자연이 완성돼야 대자연이 완성되는 이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자연에 속한 인간이 누구는 완성되고 누구는 완성되지 않았는데 대자연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승의 수선이 필요하고 우리 불자들이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집착 하지 않으면 형상 아닌 것은 저절로 보여 집니다.

「무」라거나 「이 뭣꼬」라거나 하는 천칠백의 공안이 다 무엇입니까. 집착을 끊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선의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스스로를 비추는 앎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곳에 앉아서 내 얼굴에,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입니까. 밝은 곳에 앉아 있어야 내 얼굴에 묻은 흙과 내 옷에 묻은 오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스님 화두를 생각하면 앎이 잘 안되고 앎을 하려면 화두가 생각나지 않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참선의 길을 잘 못 찾아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참선하라고 하셨지요 여기서 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않고 손끝 발끝 하나 꼼짝 않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참선이요" "아휴, 안타깝습니다. 이세상에서 탐진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참선이요"그렇게 말하고는 유마는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탐진치를 내지 않고 사는게 참선이라니. 이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탐진치를 나타내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환히 비춰 보는데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그것을 빨리 닦아내지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을 비춰보는 삶은 언제나 깨끗하고 결국은 탐진치를 나타내지 않는 참선, 유마가 사리불을 질책한 참선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비춰보는 사람이 참선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고 일도 잘하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불교를 믿

찌란 말입니까.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선의 길 대승적 수선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스스로 비춰보며 사는 것이 불교요 참선이요, 대승적 수선인데 사람들은 부처님이 신장들이 조사들이 깨닫게 해주고 복도 주고 그러는 것이 불교인 줄 알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 했다시피 자신의 모습은 비춰봐야 합니다. 어리석게 비춰지면 지혜롭게 살려고 정진해야 하고 티가 묻었으면 닦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밝고 깨끗한 자신의 모습을 지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참선의 길이니 여러분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그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인간의 앎입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대자연의 순리처럼 인간, 즉 소자연도 어김없이 더러움 없이 그렇게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②
불교속의 과학

시간과 공간

김 성 규

불교에서 근본으로 삼고 있는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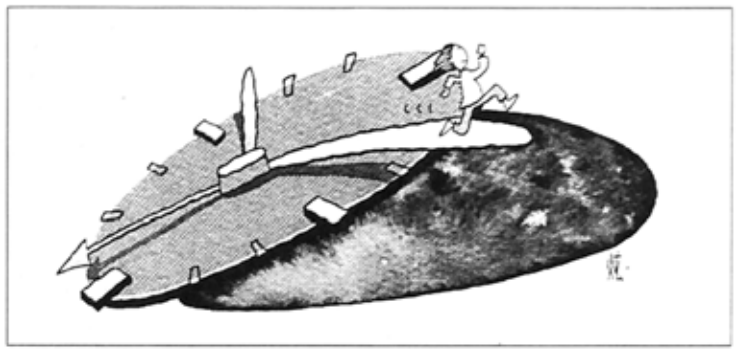
깨달음이란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과연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무엇을 깨쳤는가 부처님의 고민은 왜 늙고 병들고 죽으냐 하는 문제였으며, 이 고민으로부터 존재본질에 대하여 깨친 것이다. 왜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로 직결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시간적으로 영원하지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공간적으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3법인중 제행무상(諸行無常,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며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며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관

아버지 : "나는 지금 지구에 대해서 시속 2,000Km를 유지하고 있다. 너도 그렇게 하려무나."

아들 : "알았습니다."

???

이 우주에 정지된 기준점으로 사용할만한 천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지구는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 태양과 태양계는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의 중심을 축으로 하여 돌고 있으며,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보기에 아주 혼란된 것 같이 천체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모든 천체는 서로 상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 단 하나의 천체도 예외는 없으며, 움직이고



우주에 영원 불변한 것은 없어

점에서 존재본질을 바라본 것이다. 바로 부처님께서는 시공간적으로 존재본질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인식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일가?

바로 표현하자면 시간과 공간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며, 금성이나 화성과 같은 혹성들도 항상 일정하게 태양의 주위를 돌고있다. 이와같이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주의 흐름이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는 시간이라고 불리는 별개의 차원으로 묘사되었으며 시간은 물질세계와 아무런 관계없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일정하게 흘러가는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절대적이고 진정한 수학적 시간은 그 자신의 본성에 의하여 저절로 외부의 것과도 관계없이 한결같이 흘러간다.' 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시공간에 대한 인식이 아인시타인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먼저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자.

아버지 : "얘야, 너의 우주로켓 속도를 시속 2,000Km로 유지하렴."

아들 : "아버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하란 말씀입니까? 지구에 대해서 인가요? 아니면 큰곰별자리에 대해서 인가요?"

아버지(대한로켓)와 아들(민국로켓)이 타고 있는 두 우주로켓의 상대속도가 240,000Km라면 대한로켓에 타고 있는 아버지가 민국로켓에 타고 있는 아들의 시계를 보면 자기 시계보다 약 30분 늦게 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시계가 1시를 가리킬때 아들의 시계는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상대속도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 시계와 아들 시계의 시간차는 커지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시계가 각각 상대방에게 늦은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빛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상대론 이전에는 시간은 시간대로 공간은 공간대로 존재했었는데, 상대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는 실체로서 등장하게 된다. 결국 관찰자와 관찰대상을 동시에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상대론의 위대한 점은 바로 시간과 공간이 기하학을 인식하는 어떤 그물구조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인간 정신의 인식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고, 공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적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 없는 실체로서 동시에 인식하니까 이 우주에는 영원한 것도 절대적인 것도 없는 것이다.

있는 어느 한 천체에게도 특권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서해 제일 영산 군자봉 지장기도 도량

'영각사 지장성지, 건립불사 모연문'

불교는 인연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인연이 있는 곳에 발원이 있고 발원이 머무는 곳에 소망하는 모든일이 성취되는 부처님법은 구원의 신비이며 자비의 기적이라고 일컫어 왔습니다. 군자봉 영각사에 수 많은 불자들의 인연과 작복을 필요로 하는 때가 왔습니다. 특히 군자봉은 신비한 영험이 자주있어 전국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발원하며 소원을 이루는 영산(靈山)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험한 성지(聖地)에 국내 유일의 지장대참회 기도도량이 될 대웅전 및 지상대불을 모시는 대작 불사를 발원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제방(諸方)의 불자제현께서는 지희 정성을 십분헤량하시고 수희동참(隨喜同參) 하시어 이 대작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부처님의 광명이 오래 빛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8년 7월



불자여, 너의 몸과 가정이 어렵고 힘들때 일수록 부처님께 보시공덕으로 극복하라 !

불사동참구좌

우 체 국 : 102937-012049
농 협 : 211053-51-022064
국민은행 : 247-25-0004-422
상업은행 : 313-04-108489
신한은행 : 610-01-004965
예금주 : 영각사



사찰에서 필요한 체계적인 사찰종무관리의 전산화 보리수 프로그램을 2여년에 걸쳐 수정하고 보안하였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본사찰에서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각사 주지 서현법 합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산 22-3 / 문의전화 : 0345 498-7700~2 / FAX : 498-7703

소년소녀 가장 돕기

대행스님 부산대법회



참인간으로 사는 길

부처님께선 중생의 숭배를 받고자 오신 게 아니라 중생에게 "마음을 깨달아 부처 되는 길"을 가르치고자 오셨습니다.

마음, 그 무궁무진한 대자유의 세계로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어 주시고자, 여기 대행스님의 법좌를 마련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충만된 삶, 영원한 자유인으로 나아가는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 원 장 혜 도
신도회장 이하경 합장
박성빈

장 소
KBS 부산홀 (남천동)

일 시
불기 2538년 11월 13일 (일) 오후 2시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

후 원
부산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신도회 · 부산불교거사림회
부산불교실업인회 · 대한불교신문 ·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 부산 불교방송 · KBS 부산방송국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1
전화 (051)402-7077 / 팩스 (051)403-1077
포교실 465-1530

고은의 불교 대하소설

산에서 내려오다

〈서하문집〉 3집과 소책자 〈수미행〉을 가지게 된 인담은 뇌장산이 새삼 두려워졌다.

그곳의 험준한 산세 때문이 아니었다. 그 산세가 함부로 내보이지 않는 어떤 그윽한 유혹의 힘앞에 시를 쓰는 자이든 수행하는 자이든 똑같이 순결한 심혼(心魂)인지라 즉각 굴복하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실로 몇 백년만에 세상의 눈에 닿은 임춘의 시를 몇 수 읽어 가다가 시 「행로난(行路難)」에 딱 멈추었다.거기에는 임춘의 붓이 당장이라도 그 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게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인담으로서는 그런 시인의 박명(薄命)에 깊이 연민을 일으킨 나머지 다음과 같은 한 줄이 내뿜고 있는 비약의 극치에 의해서 소박한 연민 따위를 내버려야 하였다.

고운 눈썹 잘못 그려 나라를 하직하듯 (娥眉錯畫移辭國)

이 절창(絶唱)의 1행에 이르러서 「고운 눈썹 잘 못그려」라는 구절이 고사(故事)에 연유한 것인지 시인의 탐미적(耽美的)인 비유인지 알 수 없음에 그 자신의 얕은 지식을 한탄하였다.

'좋은 시는 좋은 귀가 있어야겠지. 내 귀가 그런 귀가 되려할진대 더욱 공부를 해야겠지···시란 시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한 바이며 일체 만상 위에서만 비로소 한 수의 시로 완성되겠지'

누가 듣지도 않는데, 마치 듣는 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인담은 혼자 입을 열고 있었다.

하기야 몇 백년전의 고려국 스님으로부터 시의 교과서로 삼을 한 시인의 문집을 받을 만큼 영험(靈驗)이 많은 인담인지라 누가 없이도 그 누가 있음이 아니겠는가.

그는 뇌장산 마애불 밑의 굴 속에서 사흘밤을 지냈다. 혹시 짐승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던 것이 첫 날밤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인담이 이곳에서 지낼 작정을 했을 때 짐승들의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기 때문이었다. 아니 그 소리는 환청(幻聽)인지도 몰랐다.

'···오면 함께 자기로 하지'라고 태연한 생각을 냈지만 그것으로는 택없는 상태의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부싯돌을 쳐서 굴 앞에 삭정이 불을 놓았다. 그래서인지 다음날 밤은 아예 짐승의 소리 따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메고온 걸망 속에서 생쌀을 한 줌 씹어 삼키는 것으로 끼니를 삼았다.

임춘의 시를 조심스럽게 뒤적이는 일도 뇌장산 굴의 이틀째부터는 그만 두었다. 그는 한동안 이곳에 머물기로 마음을 먹었다.

두고 온 서해 무욕도의 갈대지붕 암자에서 들리는 파도소리가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담인이라는 과거세(過去世)의 스승이 꿈 속에 나타나, 이제 그 스승이 인도한 이곳의 기연(奇緣)을 하염없이 섬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인담은 오는 겨울을 날 채비부터 서둘러야 하였다. 산의 윗부분 인지라 아주 높은 곳일수록 봄이 늦고 겨울이 빠르다.



〈 2 〉



그림 · 최규일

낙조의 극채색이야말로 피를 뿜는 아픔의 절규···

먼저 땔감을 쌓아야 하였다.땔감을 만들어 놓은 다음 저 아래 몇 가호 마을에 가서 잡곡과 옷가지, 화식용(火食用)의 솥단지나 그릇 따위도 구해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결코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 절벽과 급경사로 된 지대를 살아 갈 터전으로 삼아 땔감을 모아 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그가 와 보니 굴의 천장에 해당되는 암반이 내려앉아서 어둑어둑한 안창이 막혀 있었다.다행히 상자는 바깥 쪽에 두었으므로 그 굴의 붕괴에서 피해를 면하게 된 것이다. 그의 뇌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다.

'···떠나라는 분부이신가'

인담은 마애불상의 그 단조로운 부조(浮彫)를 올려다 보았다. 그 마애불 얼굴에는 어떤 미소도 어떤표정의 암시도 있을 리 없다. 하지만 그는 「소승 떠나고자 하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좀 경솔했던 것일까.

이미 해가 기울어 지면서 그 고산지대의 하늘이 시뻘건 낙조를 물들여 장려한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었다.

'시인일진대 이와 같은 화장세계(華藏世界)를 읊어야 하겠지!'

그 낙조의 하늘은 아주 원만하지 않은 예리한 암괴가 서로 다투듯이 솟아 올라 마치 하늘의 아래 부분을 찔러대어 마구 피를 뿜어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낙조의 그 극채색(極彩色) 이야말로 피를 뿜는 아픔의 절규 자체인지 몰랐다.

이같은 장대함 이야말로 비극적이다. 이같은 장대한 아름다움이야말로 불보살의 경지이기보다 아픔 그대로의 고해(苦海)인 중생의 세계가 펼치는 극치인지 모른다.

인담의 마지막 하룻밤은 그가 들어가 누울 만한 굴이 없어졌으므로 굴 밖의 절벽에 기대어 그 좀잠을 수 없는 추위를 오들오들 견디어 내야만 하였다.

이미 낙조의 끄트머리는 찬 기운이 채우기 시작하였다. 해가 지자 이산 저산의 골짜기에서 짐승들이 한번씩 소리를 내어 그 자신의 존재를 습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쌀 세 주먹을 씹어 먹음으로써 인담은 그의 몸에 기운을 담았다. 화톳불을 놓아 그 불이 사위는 것을 막아가며 밤을 어느 사연보다 길게 연장시키면서 보내야 하였다.

다음날 새벽 지척이 분간될 때에야 불구덩이를 헤쳐 거기에 오줌을 누워 꺼버렸다. 그런지라 그의 양물(陽物)은 틀림없이 불독이 올라 부풀어오를 것이었다.

'부처님 소승 떠나옵니다. 이제까지 그러셨듯이 이후로도 홀로 여기 계시옵소서'

이런 하직인사를 하면서 마애불상을 보았더니 이제까지 거기 암벽에 새겨져 있던 마애불상이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렸다.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아니!'

인담은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뇌장산과 그 일대에 대하여 더럭 겁이 났다. 걸망 속에 채곡채곡 집어넣은 책과 함께 그는 발바닥에 불을 질러 그 험한 산길의 비탈을 정신 없이 내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뇌장산을 내려오는 동안 여기저기 바위너설에 다쳤고 나무등걸에 채여서 행건(行巾) 친 두 다리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여보, 대사(大師)!"

하고 부르는 소리로 인담은 제 정신이 들어서 내달리던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멈춰 선 승찬 몸이 그대로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가 깨어난 것은 그날 미시(未時) 무렵이니 해가 중천을 벗어난 오후였다.

황해도 수안군 오동천(梧桐川) 갈고개 아래 처사촌(處士村)의 마른 풀더미 길에서 알아난 인담을 처사 몇이 겨드랑을 끼어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몹시 탈진했던 모양이오. 백비탕을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좀 괜찮아질 터이오."

라고 검은 천으로 된 관(冠)을 쓴 늙은 처사가 말하자마자 다른 처사가 부엌으로 갔다.

한참 뒤 끓인 물 한 대접을 훅훅 불어서 마시고 난 인담은 정상(正常)으로 돌아왔다.

"여기는 어디인지요?"

"허허 무척 고초를 겪으셨군요. 여기는 수안 산중이라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우선 송도(松都)로 가는 길입니다"

"송도라···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요"

인담은 그의 눈썹미로 보아 그들이 세상을 피하여 이런 산중에 은거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였다. 혹시 산채(山寨)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지도 몰랐다.

"송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야 가기 나름이지요. 필마(匹馬)를 타면 하룻길이요 만보(漫步)라면 며칠이 걸리겠지요"

"···"

인담은 그곳에서 더이상 머물 까닭이 없었다.

"소승의 노독을 풀어 주셔서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잘 가시오. 이곳을 지나면 별 탈이 없을 것이오. 다만 맹수가 나타나지나 않을지요···"

그들의 호의로 한 사람의 머리 땐 종자이 어느 만큼 인담을 호위해 주는 것이었다. 인담으로서는 걸망 속의 보물이 털리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다소 불안한 바가 없지 않았다.

그러자니 인담은 뇌장산 박달나무 지팡이로 봉술(棒術)이라도 하는 사람인양 공중에 던져 받아내는 것을 은근히 하였다. 수안부에서 신계(新溪)를 거치는 동안 층각을 돌려보내고 예성강(禮成江)을 따라오다가 경산(卿山) 땅에서는 아예 물에 떠내려가는 낙배 하나에 탈 수 있었다.

그 배가 경기도 개풍군 전포(錢浦) 나루에 닿아서야 인담은 물냄새와 헤어지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가을 밀바닥에서 달구어진 뜨거운 한숨이 그제서야 솟아올라 목구멍의 단내를 몰아내는 것이었다.

'어디 보자'

하고 인담은 예성강 물결이 뱃전에 튀어 오를 때 혹시 그 책이 젖지나 않았는가 하고 살펴보았다. 전포의 갈대밭에 박혀있는 석상 앞에서였다.

'임춘선생이야 이로부터 세상에 학실히 알려질 것이매··· 우선 더 주무시도록 할 일이고··· 그런데 '수미행'이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는 소책자 〈수미행〉을 새삼 눈을 빛내면서 꼼꼼히 펴 보았다.

첫 장에 「몇번이나 지나는 겁화가 강산을 태웠건만 본체는 안연하며 한결같이 변하지 않네, 아하하 어떤 얼굴인가(幾經劫火焰山海體自安然不變何何何是何容)」

라는 구절이 그의 눈 안에 스며들었다.

'과연 범상한 말투가 아니로군'

인담은 이 소책자가 그 자신에게는 버거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소책자를 마치 수사관이 증거물을 검토하듯이 살펴보았다. 어디에도 이것을 지은 사람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비기(秘記)가 아닌지도 몰랐다.

그 낙조의 하늘은 아주 원만하지 않은 예리한 암괴가 서로 다투듯이 솟아 올라 마치 하늘의 아래 부분을 찔러대서 마구 피를 뿜어대고 있는 것 같았다. 이같은 장대함이야말로 비극적이다. 이같은 장대한 아름다움이야말로 불보살의 경지 이기보다 아픔 그대로의 고해(苦海)인 중생의 세계가 펼치는 극치인지 모른다.

"묻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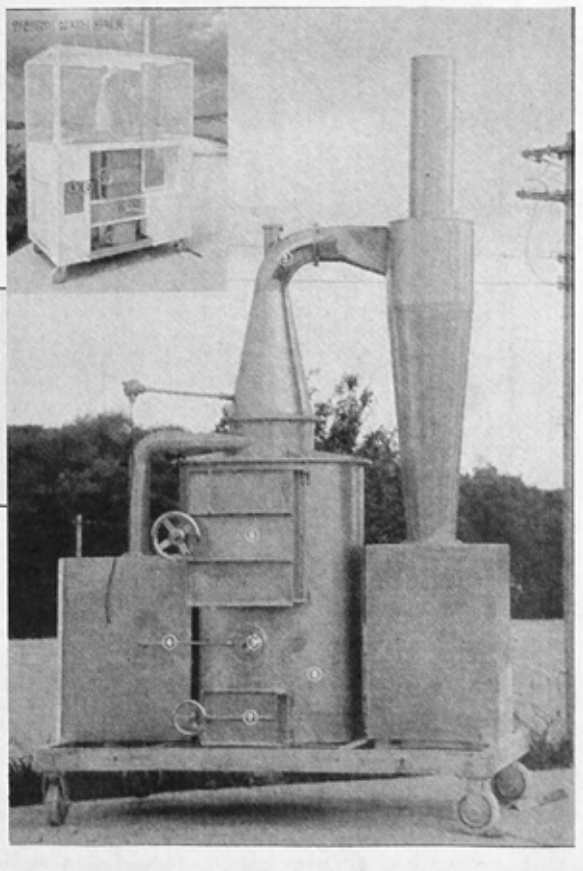
폐 비닐 ·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매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 ·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붙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 - 8644, 의장특허출원 94 - 8470, 8471, 8472



① 소 위치(버튼식)
② 공기조절 밸브
③ 안전밸(가스 방출 구)
④ 냉각파이프
⑤ 냉각물 혼 입구
⑥ 투입구(소각물)
⑦ 배출구(잔여재)
⑧ 소각로 나사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 · 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 - 1
전화 : (0344) 64 - 7236, 62 - 3488
팩스 : (0344) 62 - 7012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놀이하며 부처님 닮아가요"

불교교재 교구 개발로 '유아포교 새 전기'



◇불교교재 교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불교교재 교구로 부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불교관련 교재·교구를 이용한 유아포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유아교육을 실시하자는 움직임으로 일부 유아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고있다.

지난 10월 15일, 16일 양일간 서울 신사동 삼화불교대에서 열린 유아포교를 위한 교재,교구 전시회가 어린이 포교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전시회에는 불교관련 교재·교구 41개 작품이 선보였다. 주사위를 이용해 교통법규에 따라 절에 가는 '사찰가는 길' 떡 곡식 과일 등을 붙인 주사위를 던져 대웅전이나 큰 법당 모형에 공양그림카드를 붙이는 '부처님 공양올리기'등의 작품은 놀이를 통해 어려서부터 사찰과 부처님을 접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람자의 시선을 끌었다.

또한 목탁이나 연꽃 등 불교사물을 친숙하게 익힐 수 있는 '모래시계' 환경의 중요성을 게임을 통해 일깨워 주는 '우리도 절을 깨끗이 할 수 있어요'등은 포교는 물론 유아 심성개발을 위한 좋은 교구로 평가됐다.

이처럼 불교교재·교구개발은 단지 불교유치원의 숫자만 늘리는 양적팽창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으로 불교유치원에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불과 몇해전만 해도 불교계에는 유아포교를 위한 교재나 교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서구식 교육과정에 따라 개신교 교재가 이용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개신교의 경우 교재·교구를 이용한 유아교육에 일찍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시장성까지 확보하고있다.

불교계도 최근들어 유아포교를 위한 교재·교구 개발에 착수하여 일선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전문가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있다.

서울 사천왕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성유치원 이수진 지도교사는 불교관련 교재에 대해 "고작해야 부처님 알대기 비디오 테이프 몇개였으며 그나마 내용도 지루하고 교육효과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다"라며 "현대감각에 맞는 불교 교재가 개발되고있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고 말했다. 현재 불교유아용 교재 교구는 삼화불교대 불교유아교육과를 비롯 어린이법회 교사들이 개발에 참여하고있다. 이들의 교재개발은 교육일선에서 필요에 의해 만든것이 대부분으로 아직 대중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있다. '얼악한 재정형편과 기존 모델의 부족으로 보급이 늦어지고있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교재가 제작되어도 시장성이 없어 일과성 제작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불교유아교육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구의 활용이 떨어지는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불교유아용 교재·교구 개발에 임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은 "유아포교를 위한 새로운 교재 개발은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라며 "사찰과 유아교육관계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있을때 내일의 불교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한다.

〈한명우 기자〉

동시

도 토 리

고 명 재

〈 대구 · 대명국교 1 〉



데굴 데굴 도토리
어디서 왔나
따라귀 들어가다
떨구어서 굴러왔지

데굴 데굴 도토리
어디서 왔나
할머니 산골서 주어와
주머니에서 나오지

데굴 데굴 도토리
어디서 왔나
나무에 안겨있다
떨어져서 왔지

데굴 데굴 도토리
어디서 왔나
다람쥐 한눈 팔때
굴러서 왔지

직지사 가는 길

최우수상

김정수 〈은석국교 6〉

한국불교 아동문학회(이사장 박용열)가 주최하는 13회 전국불교어린이 글짓기 현상공모 입상작이 발표됐다. 총 응모작품 4만2천1백12편의 어린이 글짓기 작품가운데 동요 동시 56편 산문부 64편의 작품이 뽑혔다. 산문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정수군의 작품을 소개한다. 시상식은 11월 19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 칠보사에서 개최된다. (416-3346)

"와! 무서워!"

흔들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학년 동생들이 천둥소리에 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하였다. 천둥소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동생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였다. 극민학교에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가는 수련회여서 더욱 기대가 되었던 수련회였다. 다른 때보다 훨씬 재미있게 보람있게 보내고 싶었다. 더군다나 가는 장소가 직지사여서 나의 흥분은 머리꼭대기까지 올라 지난밤에는 거의 대여섯번을 잠에서 깨어나곤 하였다.

그런데 천안을 지나면서부터 쏟아지는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치기는 고사하고, 천둥과 번개까지 친구하여 더욱더 무섭게 쏟아지고 있었다.

'재수없네. 직지사로 가니까 부처님께서 특별히 봐 주실 줄 알았잖아.'

나는 비쏟아지는 것이 꼭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미워하셔서인 것처럼 투덜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옆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화가 나지도 않으시는 모양이였다. 즐거운 표정으로 마냥 스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여 앉아있는 자리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후 조금씩 검은 구름이 벗겨가기 시작하더니 엷은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와! 무지개다! 하늘에 쌍무지개가 걸렸다!"

순식간에 반짝거리는 눈들이 차창밖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보려고 난리들이었다.

뽀얀 안개 사이로 걸린 두개의 무지개는 어둡던 내 마음의 구름을 싹 걷어가고 말았다.

쌍무지개와 함께 직지사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스님들께서 반갑게 마중을 나와 계셨다. 설법전에 짐을 풀고 입제식을 하였다. 스님께서는 우리들이 반가운 비를 몰고 온 부처님의 동자들이라고 하시며 어느 정도 가뭄이 해결되었다고 좋아하셨다.

눈을 감고 입정을 시작하며 나는 버스속에서 잠시 가졌던 마음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나는 광소에 좋은 일이 있을때 부처님께 조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었다. 그리고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섭섭한 마음으로 부처님때문이라고 원망하며 투덜거리곤 하였었다.

오늘도 다른날과 마찬가지였다. 비가 쏟아지면 우리들은 놀수도 없게 되고, 활동하기에도 불편하게 될 것만 같아서였다. 전국 곳곳에서 가뭄이 심해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려보지 않았던 것이다.

논바닥이 갈라져 타들어가는 모를 보며 한숨짓는 농부들의 얼굴을 나는 텔레비젼에서 여러번 보았다.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고추잎을 보며 눈물을 닦는 아주머니들의 얼굴도 많이 보았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런 것은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오로지 뛰어놀고 장난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비오는 것이 싫기만 하였던 것이다.

입정을 끝냈을때 부처님께서는 나를 보시며 웃고 계셨다.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내일 개울에서 수영도 할 수 있대요. 물론 많은 식물들도 쑤욱쑤욱 잘 자랄꺼구요.'

그날밤 꿈속에서 나는 많은 친구들과 즐겁게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었다.

반가운 비를 몰고 온 부처님의 동자라고 · · ·

만화

法句經 법구경

○대구(對句)의 장○

비람앞에
바위신처럼
굳은신앙을



이 양 원



봉 봉선사 주지 진산식 안내 축

귀의 삼보하옵고,
역경과 전법의 요람이며, 유서깊은 교종 본찰인
봉선사 주지 운경 기홍 큰스님의 진산식을
여러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무루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불기 2538년 11월 10일

주지 진산 봉행 위원회

증 명:월하
지 도 위 원:태정, 성파, 일우, 일면, 태공, 화담, 각원
봉행위원장:밀운
집행위원장:의정
기 획 실 장:화범
섭 외 담 당:정수, 준원, 의선, 법류
홍 보 담 당:의광, 송묵, 철안
재 정 담 당:의화, 경하, 법해
의 전 담 당:정수, 인묵, 충현

*일 시 : 불기 2538년 11월 10일 (목) 오전 11시
*장 소 : 봉선사 큰법당
*안내전화 :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0346)68-1951~3 FAX:68-1958
(화환은 사절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5 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장 변 밀 운 합장

불교사전 주제별 편찬 활발

선·사찰·설화·인물·상식백과등···전문성 돋보여

불교사전을 이용한 정확한 어휘사용과 뜻풀이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글쓰기와 책읽기의 기본에 속한다. 책꽂이 한켠에 꽂혀있는 불교사전이 바른 불교공부로 이끌 것임은 당연하다. 불교사전에는 어떤것이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있는 사전의 한계는 무엇인가.

현재 나와있는 불교관계 사전은 10여종에 이른다. 1961년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사전〉을 비롯해 지난 해 나온 〈불교상식백과〉까지 다양하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불교사전〉(동국역경원, 운허 지음). 불교어휘와 사찰 등 모두 1만4천여 표제어를 수록, 소항목주의의 편집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61년 출간 이후 가장 많이 보급된 것으로 올해까지 27판을 펴냈다. 일본의 〈모범불교사전〉〈선학사전〉〈불교대사전〉, 중국의 〈불학대사전〉을 참조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한국불교대사전〉이다. 전7권으로 구성된 이 사전은 당초 보련각에서 펴냈으나, 지난해 명문당에서 증보판으로 다시 내놓았다. 7만5천여 표제어를 소항목주의에 따라 편집했다. 표제어가 가장 많으나 단편적인 풀이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제별 사전은 1962년에 권상로박사가 지은 〈한국사찰사전〉이 최초이다. 6천3백여 사암의 소재지와 연혁, 사찰의 중요기사를 실었다. 본문을 한문으로 풀이하고 색인을 한자의 획수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한글세대가 보기에는 또다른 사전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90년대에 들어서며 불교계 사전편찬은 부문별 주제별 편찬으로 번해가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지금까지의 사전이 학문연구 성과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외국 성과의 옮기기였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불교학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불교학연구 사전으로는 〈불전해설사전〉을 꼽을 수 있다. 방대한 양의 불전 중에서 불교의 근본사상을 표현하고 불교발전에 공헌한 중요한 문헌들의 주요내용과 연관된 연구 및 문헌학적 정보를 망라했다. 인도 티벳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중요문헌 308개를 텍스트로 삼았으며, 특히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 '티벳불교사' 등 티벳 문헌을 싣고 있어 국내의 불교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가 엮고, 민족사에서 89년 펴냈다.

불교학연구의 기초가 되는 외국어사전은 올해 4월 나온 〈빠알리어사전〉을 들 수 있다. 특히 빠알리어는 부처님이 직접 사용한 언어로 추정됨으로써 근본불교 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교상식백과〉는 지금까지의 사전개념을 바꿔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불보살의 명호' '경전속의 인물' '불교의 명지' 등 주제별로 항목을 설정해 읽기함으로써 불교입문서로서의 성격도 지닌 독특한 편집방법을 택했다. 22개의 대주제에 각 장마다 30~60항의 표제어를 풀이했다.

98년 완간을 목표로 준비중인 〈가산불교대사전〉(권찬위원장 지관)은 불교학 및 출판 나아가 한국문화에 알대 획을 긋는 대작불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확한 전거와 이에 바탕을 둔 기술로 학술 및 역사적 가치를 증시하는 한편 전문사전이면서 동시에 대중적 사전이 되게 한다는 것이 권찬의 목표이다.

사단법인 국일불장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비영리 문화사업으로 지난 83년부터 추진하는 이 사전에는 전10권(4.6배판) 분량에 한국 인도 중국 티벳 남방 일본불교 불교일반을 망라한 20만 항목의 표제어가 실린다. 제1권은 내년 초 발간될 예정이다.

올 연말 출간을 목표로 감수단계에 있는 〈선학사전〉(불지사)은 우리나라 선종사를 중심으로 선가의 용어 공안 선사 선서 사찰 등의 주제별로 9천여 항목을 담을 예정이다. 용어해설과 함께 출전에 근거한 예문을 실어 소항목주의의 단편적인 풀이를 보완한다는 편집방침이다. 이와함께 선종사 연표 선종법계도 선서목록 공안색인 선종사지도를 부록으로 실어 연구성과를 정리했다. 불교시대사도 〈한국사찰사전〉을 올해 안에 펴낼 계획이다. 불교방송 조사자료부 이정 부장의 편저로 7천여 사암을 표제어로 수록해 소재지 및 소속종단, 연혁, 사찰에 얽힌 설화, 문화재, 주석했던 고승 등을 내용으로 싣는다. 도별 색인과 문화재 일람을 부록으로 구성, 이용에 편리를 기하겠다는 편집방침이다.아울러 북한소재 사암과 주요 폐사지도 소개한다.

한편 민족사에서 무비스님 완역 〈화엄경〉의 부록으로 펴낸 〈화엄경소사전〉은 본격적인 사전편찬은 아니지만 단일경전의 이해를 위한 공구(工具)로, 향후 경전사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성운 기자〉

불교관련 사전 목록표 (*표 근간)

사 전 명	저.편자	출판사 (출판년도)
불교사전	운허	동국역경원(61)
불교대사전(전7권)	편찬위원회	명문당(82)
불교학대사전	편집부	홍법원(88)
불교사학대사전(상.하)	조명기	보련각(91)
한국사찰사전(상.하)	권상로	이화문화(62)
설화대사전(상.하)	한정섭	이화문화(91)
불전해설사전	정승석	민족사(89)
빠알리어사전(상.하)	전재성	한국불교대학(94)
불교상식백과(상.하)	홍사성	불교시대사(93)
한국불교인명사전	이정	불교시대사(93)
화엄경소사전	무 비	민족사(94)
불교용어바르게알기	안길모	길출판사(93)
가산불교대사전*	편찬위원회	가산불교연구원(95)
선학사전*	편찬회	불지사(94.12)
한국사찰사전*	이 정	불교시대사(94.12)

명사추천 불서100선

법구경

기쁨과 감동의 구절들에 매료



김 양 식 <시인>

나는 지금까지도 불교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을 편한 내 성장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나는 조계사 앞에 즐지어있는 불교서점을 찾았다.

내 눈에는 거기 서가에 꽂혀있는 모든 불교관계 서적들은 하나같이 생소했다. 그러나 아무튼 무슨 책이고 간에 골라 읽어야 했다.

어느 책이 나같은 초심자에게 맞겠느냐고 책방주인에게 물었다. 그때만해도 불교관계 서적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물론 금강경 유마경 아함경 등등은 다 있었으나 불교에 대하여 무지한 나에게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서점주인의 말도 있고 해서 법구경을 찾아 골라보니 참으로 오랜동안 내가 찾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높은 기르침의 말씀들이 빛을 발하는 주옥같이 거기 새겨져 있었다. 청아하고 간결하나 매우 심오한 진리의 말씀. 그 깊은 뜻이 내게로 전달되어 내 맘을 깊은 곳에 조용히 정화하는 것이었다.

나는 법구경을 위시하여 몇권의 불교서적을 더 사서 안고 집에 오면서 마치 금은보화를 안고있듯 큰 기쁨과 흥분을 느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어갈 나의 새로운 사상의 길을 내다보려 했다.

법구경 역시 모두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셨다. 구절마다 나는 무한한 기쁨과 감동에 벅찼다.

또한 거기엔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윤리와 도덕까지도, 특히 요즘 빈번히 거론되는 효사상까지도 구체적으로 설하고 계심에 더욱 친근감이 있다.

나는 그 한말씀 한말씀을 곱씹으면서 정독을 거듭했다. 그만큼 나는 처음 대하는 부처님 말씀에 그대로 매료되어 깊이 침전되어감을 느꼈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도 법구경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읽고 또 거듭거듭 읽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윤리·도덕 담겨 친근감

허공에는 새의 발자욱 없고
사문에게는 다른 뜻이 없다.
세상은 모두 항상됨이 없지만
부처님만 항상 계신다.
〈진구품 중에서〉

바로 30년 전의 이야기이다.

내가 함으로 경이롭고 소중한 꿈을 꾸고 난 후, 불교의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그 꿈으로 인하여 놀라 깨어난 직후 나는 처음으로 과연 불교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그 큰 미지의 세계를 풀어다 볼 수 있을까 고심을 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불교에 대한 지식은 물론 상식마져도 전혀 없었던 순수한 백지였기 때문이었다.

내꿈에 세 분의 큰 스님이 나란히 나의 거처하는 방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큰 미지의 세계를 풀어다 볼 수 있을까 고심을 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불교에 대한 지식은 물론 상식마져도 전혀 없었던 순수한 백지였기 때문이었다.

내꿈에 세 분의 큰 스님이 나란히 나의 거처하는 방으로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새로 나온 책

▲한국불교 고전명저의 세계(김영태 지음)=신라 원효로부터 조선시대 각안(覺岸)의 〈동사열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고승대덕 69인이 저술한 불교명저 117종에 대한 해설서. 저자는 이 책들의 문헌서지적 측면과 교리적 특성, 역사적 위치를 상세히 서술, 한국불교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민족사, 9천원.

▲스님, 꽃필 날이 멀었습니까(강현정 지음)=기자와 교직생활을 했던 저자가 34세에 성철스님을 만나 구도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파란만장한 저자의 삶이 성철스님의 가르침으로 안정을 찾는 과정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다. '스님, 꽃필 날이 멀었습니까' '어째서 부처를 삼서근이라 했는고' '스님 옆에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등 3부로 구성. 자유문학사, 6천원.

▲하버드의 달라이라마(제프리 홈킨스 엮음)=81년 하바드대학에서 있었던 달라이라마의 강연을 기록한 책. 불교논리학과 인식론, 대승불교의 보살사상, 연기법, 공, 중도 등에 관한 그의 강연과 하바드대학에서 동양학과 불교를 전공하는 대학원생, 교수들과의 문답을 통해 불교는 삶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이며, 특히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실천원리임을 알려주고 있다. 김충현 옮김, 새터, 7천원.

▲물고를 찾아가는 길(김형중 지음)=청소년들을 위한 불교입문서. 불교전문용어를 현대의 일상언어로 풀어쓰고 불교를 서구의 철학적 논리와 대비해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불교의 가르침인 5계의 실천에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말암, 4천8백원

▲물상의 탄생(다카다 오사무 지음)=불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숭배되었는가 하는 불상의 출현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간다라와 마투라 미술을 통해서 살펴보고 불상의 출현이 불교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밝혔다. 인도 불교미술의 고유한 조형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엮었다. 이숙희 옮김, 예경, 7천원.

▲물처럼 사노라면 후회없으리(윤청광 지음)=근현대 한국불교의 대선지식이었던 경봉스님의 전기소설. 16세에 삭발출가하여 91세에 입적하기까지 스님의 구도행적이 담겨 있다. 당대의 선지식인 한암 제산 용성 전강스님들과 주고받은 선문답 이야기 등을 통해 경봉스님의 큰삶의 자취를 대할 수 있다. 언어문화사, 5천원.

출판단신

'불광' 우수잡지 선정
공보처, 종교지 최초

월간 '불광'(발행인 광덕)이 지난 19일 개최된 공보처 우수잡지선정 심사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연세대 교수)에서 94년도 우수잡지로 선정됐다. 종교계에서 우수잡지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정증 수여식은 잡지의 날인 11월1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거행된다.

우수잡지 선정은 상업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정서함양에 기여한 잡지를 지원키 위해 공보처가 9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94 종교연감 펴내
한국 종교사회연구소

한국 종교연감 94년판이 한국종교사회연구소 (소장 윤이흠 서울대 교수) 에 오해 발간됐다.

연감은 총론과 편람부분으로 분류, 총론에서는 93년도의 종교계 동향과 일지 중요사건 성명서와 메시지 등계 등을 실었다.

통계에는 △92년도 지역별, 종교별 교단현황 △종교언론 △종립학교 △외국 종교단체 △국내외 선교사 및 포교사 현황자료를 수록했다.

편람은 설문지 응답자료와 전화설문을 통해 종단 및 종단 산하기관, 단체등의 소재지와 연락 활동내용 교리와 의례등을 정리했다. 정가 9만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 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어보게, 자승잘때 뭘 가지고 가지	석용산	고려원미디어
2	도(道)	김정빈	글수레
3	혼자살기엔 너무 쓸쓸한 세상	황청원	책만드는집
4	천수경	무비품이	불일
5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6	포스트모던사회와 열린종교	길희성	민음사
7	부처님 땅	이정범 외	불지사
8	불자예절과 의식	김길원	불광
9	만다라	김성동	푸른숲
10	부처님의 십대제자	사사키세이	우리출판사

◇ 구입문의 = (02)737-0695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 쓴

이야기 한국불교사 I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344면 / 값 6,000원

"구도의 불길이 한 순간도 꺼진 날이 없었던
1600년 한국불교사
이제 그 찬란한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 문화의 뿌리가 되어온 불교문화,
한국불교의 위대성과 독창성,
불교가 전래된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이야기 한국불교사 I』은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전반적인 모습을 108개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풀어 쓴 책으로 불교도는 물론
일반인 · 중고생까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 이제까지 발간된 한국불교사 관계 책 중에서
가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불교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책입니다.

누·가·불·교·를·어·렵·다·고·만·하·는·가?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시작하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5,000원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신국판 / 242면 / 값4,500원

Ⅰ. 큰스님 주변 이야기
Ⅱ.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Ⅲ.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윤회담
Ⅳ.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Ⅴ.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5,000원

경봉대선사의 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사바세계를 무대로 살아
연극 한바탕 멋있게 하라"고
당부하셨던 경봉대선사.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했던
이 시대 최고의 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19면 / 값4,300원

피부미용의 동의보감

한방피부미용

한의학 박사 송점식 지음

고운 피부,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저자 송점식 박사는 고운 피부를 가꾸면서
불로장생의 삶을 이루는 비결을
이 한 권의 책 속에 명쾌하게 수록했다.
아울러 현대인들의 고민거리인
기미 · 여드름 · 비만증 · 대머리 · 흰머리 등
36가지 피부 트러블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효험이 큰
325가지 민간요법과 처방전을
자신의 진료경험을 토대로 선별, 집대성했다.

신국판 / 368면 / 값 6,5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TEL:587-6612 · 6613 FAX:586-9078

훼손은 급속 원각사지 10층석탑 관리는 저속

공해·산성비에 인위적 마모까지 "불자가 지켜야" 여론

종로3가 탑골공원의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2호)이 날로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원각사 복원추진회(대표·청청스님)는 지난 25일 탑골공원 원각사지 10층석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측이 탑의 철저한 관리책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각사지 10층석탑의 훼손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관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교계나 정부측 모두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복원추진회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훼손과 관련 문화재관리국 서울시 등에 계속적인 대책수립 건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청스님은 "해당기관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 빠른 대책을 요청했으나 문화재 관리국과 서울시 종로구청등이 서로 미루기만 했다"고 밝혔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훼손은 빗물에 의한 산화와 비들기등의 오물에 의한 부식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탑의 2층부분 화엄회상 조각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와관련 청청스님은 "정부측의 철저한 관리의지가 보이지 않으니 자연적 훼손에다 인위적인 훼손까지 겹쳐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이 인위적인 훼손은 이교도에 의한 것이란게 목격자의 증언이다.

원각사지 10층석탑의 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자 문화재 관리국은 92년에 실측조사를 벌였었다. 그러나 이 실측조사 이후에 관리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청스님은 또 "본인이 지난 91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관청에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시켰으나 문화재관리국·서울시 등이 매우 피상적이고 실효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25일 기자회견에 이어 26일 아침 조선일보, 동아일보등이 탑의 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일제히 기사로 다루자 문화재관리국등 당국은 26일 오전 현지에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문화재관리국의 실측보고서에서 제시된 탑외곽 전각 설치와 관련, "반대의견도 있는 처지여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미련 못했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의 요지는 전각을 세울 경우 통풍의 차단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탑의 훼손이 보도되자 일부 불자들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원각사지 복원추진위는 탑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탑골공원의 입장료를 받는다 △탑 보호각을 짓는다 △관계 기관에서 24시간 지킨다는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입장료 수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보호각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국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각사지 10층석탑은 1069년 고려 문종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각층마다 삼세불회, 화엄회, 소재회, 원통회 등 다양한 회상도가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탑으로 1946년에 오늘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임연태 기자〉

현장에서

원각사 10층석탑 수난보도를 접하면서 지난 25일 저녁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불자들에겐 과히 충격적인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잘 보존되리라 믿었던 국보가 훼손되다니. 사실 언론에서 파손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92년 6월18일부터 12월30일까지 6개월을 넘는 기간동안 황수영 박사를 비롯한 학계와 문화재 관리국이 공동시행한 정밀실측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이다. 92년6월이전 파손된 부분은 화엄회 석가모니불·미타회의 사천왕상·용화회의 사천왕상과 우측불상의 일부분이다. 조사서에 의하면 이부분들은 약5백년간의 풍화작용 특히 산성비, 종로를 지나는 자동차매연, 새들의 배설물등으로 석조각의 표피가 산성화 되면서 자연훼손과 마모, 다소간의 인위적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자정경 한청년이 술을 먹고 전단서상회에 꿇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벌을 받았고 탑을 오르고 내리며 구두에 의해 탑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렇듯 상식이 없는 한 시민이 저지른 실수가 우리의 불탑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실례이다. 관리소의 숙직 2명이 약5천평을 밤중에 관리할 수 있을까.

실제 본인은 지난 3월 덕화산 산사에서 내려와 원각사탑의 중수 또는 수호할 수 있는 참지 못해낸 내용은 불자들에겐 과히 충격적인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잘 보존되리라 믿었던 국보가 훼손되다니. 사실 언론에서 파손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92년 6월18일부터 12월30일까지 6개월을 넘는 기간동안 황수영 박사를 비롯한 학계와 문화재 관리국이 공동시행한 정밀실측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이다. 92년6월이전 파손된 부분은 화엄회 석가모니불·미타회의 사천왕상·용화회의 사천왕상과 우측불상의 일부분이다. 조사서에 의하면 이부분들은 약5백년간의 풍화작용 특히 산성비, 종로를 지나는 자동차매연, 새들의 배설물등으로 석조각의 표피가 산성화 되면서 자연훼손과 마모, 다소간의 인위적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더군다나 문화재관리국이 실측조사를 한 전후 우리 불자가 이에 관심을 갖고 보호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국보이기 이전에 이 보탑은 우리신앙의 대상이다. 실제 본인이 10월9일 자정경 한청년이 술을 먹고 전단서상회에 꿇다발을 올려놓고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경찰의 처벌을 받았고 탑을 오르고 내리며 구두에 의해 탑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렇듯 상식이 없는 한 시민이 저지른 실수가 우리의 불탑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실례이다. 관리소의 숙직 2명이 약5천평을 밤중에 관리할 수 있을까.

실제 본인은 지난 3월 덕화산 산사에서 내려와 원각사탑의 중수 또는 수호할 수 있는 참지

"무관심이 성보 망친다"

석보리 원각사지 탑앞에서

「가사호접」등 불교춤 서울 무용제 장식



◇가사호접의 한 장면

10월21일부터 11월8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서울무용제에 불교소재 작품이 여러편 출품돼 시선을 끌고있다.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은 29~30일 무대에 올려진 「바람개비의 꿈」. 스님 무용가 자은스님(하와이 불은사 주지)이 특별출연한 이 작품은 인간의 욕망을 날을 수 없는 바람개비에 비유하고 있다. 자은스님은 공연을 마치고 바로 출국했다. 스님은 이에 앞서 23일 LA월셔 이벨극장에서 문둥춤 「번뇌」를 공연하고 귀국했다.

첫날 공연된 「가사호접」은 승려의 가사가 호접과 같이 나부낀다는 뜻으로 환속한 스님의 고뇌를 그린 명작무(93년 지정)다. 故 조택원씨의 춤을 김문숙씨가 승계했다.



◇자은스님

동작을 호흡과 연결시킨 「빈배」는 자기를 비우자는 가르침을 담은 정옥조 무용단의 작품. 11월4~5일 공연된다.

23일 무대를 장식한 「무상」은 존재의 의미를 강조한 춤으로 허무까지 수용할 때 존재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고려불화 복원 기금마련 서화전

월하·석정스님등 작품 내놔… 민자불교신도회

민주자유당 불교신도회(회장·곽정출)는 94년 3대목표사업의 하나인 고려불화 복원사업을 위한 「기금마련 고승서화전」을 지난 26일부터 1일까지 관훈동 백상갤러리 지하1층 에서 가졌다.

이번 서화전에는 조계종 월하종정의 글씨와 인간문화재 제48호 석정스님의 불화, 희암스님의 풍속도 다수와 도자기등 총 73점이 전시됐다.

민자당 불교신도회의 '94년 3대목표사업은 이차돈 기념사업, 고려불화 복원사업, 불교회관 건립이다.

이번 서화전은 3대목표사업중 첫번째 사업으로 국내에 보관중인 고려불화 20여점을 제외하고, 국외에 산재된 100여점의 고려불화중 확인된 30여점만의 고려불화를 똑같이 복원(모사)하여 보존키 위한 것이다.

고려불화는 본존불과 협시불이 상하단을 이루는 구조가 조선불과 틀려 학계의 관심을 모을뿐만 아니라 색감의 사용이 중간색을 쓰면서도 금색을 많이 사용해 호화찬란함을 보여줘 외국의 미술애호가들 또한 상당수의 고려불화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량산 괘불탱 보물지정

문체부,「반야심경약소」도

문화체육부는 지난 17일자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량산괘불탱(淸凉山掛佛幀)」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식성군 이운룡선무공신교서(息城君 李雲龍宣武功臣敎書) 의 관계문서」 3건을 보물 제1210호, 1211호, 1212호로 각각 지정했다.

청량산괘불탱은 거대한 보살입상이 화면 꽉차게 그려진 괘불로 화려한 보관에 붉은색과 녹색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천의(天衣)를 걸치고 있다.

영조 1년(1725)에 제작된 이 보물은 근엄한 얼굴에 영락장식과 꽃무늬들이 장엄하고 정교하게 표현돼 있어 세부 특징이나 형태로 볼 때 청양 장곡사 미륵괘불도와 비교되는 당대의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는 반야심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송나라 중희(仲希)가 법장(法藏)의 반야심경약소에 자신의 현정기(顯正記)를 붙인 것이다.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 아니라 교정인이 찍혀있고 서울대 소장본인 보물 제771호에 비해 전(箋)이 더 붙어있어 불교문화사 및 서지학연구에 귀중한 문화재로 인정되고 있다.

윤회 주제작 선봬
박병희 조각전

인연이나 윤회, 업 등 불교의 핵심사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박병희씨의 조각전이 관훈동 갤러리 도올에서 지난달 25일까지 열려 깊이있는 사유의 세계를 보였다.

불심시심 〈2〉

가을산 잎은 절로 붉다

大朴無形一大空 큰 박은 형상을 떠난 하나의 큰 허공
대박무형일대공
無聲無臭有無中 소리도 냄새도 없이, 있고 없음의 저쪽
무성무취유무중
春風何處無花發 봄바람에는 어느 곳이나 꽃 없는 데 없으나
춘풍하처무화발
霜濃秋山葉自紅 가을 산 서리 내리면 잎은 저절로 붉다
상농추산엽자홍

어느 속시가 선사께 여쭈었다. "천당이나 지옥이 있습니까" 하니 "있다"고 대답하자, 속사가 다시 말하기를 "다른 스님은 없다 합니다"했다. 그 선사는 문기를 "너는 처자가 있느냐" "있습니다"하니 선사 다시 묻되 "아까 그 스님이 처자가 있느냐" 하니 "없지요"했다. 선사는 "그러니까 그 스님은 천당 지옥이 없다 해야 하지 않느냐"했다는 것이다.

위 시는 이 사실에 대해 肖梅선사가 읊은 시이다.

청매선사가 이 시를 지을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거나 스스로 구른다는 과학적 논증까지는 아직 정립되지 못한 시기이겠지만, 이미 이 우주에 있어서의 지구는 하나의 구형으로 그 부한의 거대함을 인식한 셈이다. 여기서 말한 큰박은 이 우주 내지는 지구의 까임새를 말한 것이다. 형상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관대 무변하기에 형상지을 수 있는 표현을 초월한 것이다. 그것을 허공이라 할 수도 있겠다. 불가에서 우주를 33천이라 했던 예지를 집작할 만하다.

여기에다 소리니 냄새니, 있다거나 없다거나 함은 그 존재의 실체와는 아무 의미 없는 군말이다. 그렇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잎이 지는 것이 또한 지구 존재의 실체이다 피어 있는 꽃에서 단풍을 의식하지 못함은 꽃 그 자체에 집착된 매달림이다.

천당이니 지옥이니하는 것이 그 처지에서의 있고 없음이지 처지가 다르면 지옥이 천당이고 천당이 지옥일 수도 있다. 처자식이 없는 스님의 처지가 세속의 가족적 결박의 속인과 같을 수 없으니, '있다'의 대답은 세속을 인접함이요 없다의 대답은 산중의 생활일까. 봄꽃 가을 단풍의 대척이 바로 삶의 음양이 아닐까

이 증 찬 〈동국대교수〉

불교정서 담은 조각품 발표

전뢰진교수 정년기념전

현대조각의 거장 홍익대 전뢰진교수 정년기념전이 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관훈동 선화랑(734-0458)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의 향기가 밴 정통정서를 형상화 한 구상조각품 13점이 전시됐다.

이 작품들은 하나하나 정으로 쪼아 다듬은 표면의 완만함과 부드러움 속에 불상과 전통설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수의 근작 중심으로 전시된 이번 기념전은 그의 제자 김경옥, 한진섭, 유영교, 고정수, 강관욱씨 등의 작품이 찬조 출품된다.

안중근의사 친필전시
자비의집 기금전

최근 안중근의사의 마지막 친필유묵으로 알려진 '경천(敬天)'을 국내에 들여온 삼중스님(부산 자비사주지)이 자비의 집 건립기금을 마련키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11월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세원백화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경천'을 비롯 김구선생의 친필유묵과 김영삼대통령의 작품 등 30여점이 전시된다.

봉래산 향로 문양등
문화상품 전시

「우리문화상품 특별 기획전」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롯데 백화점 갤러리 10층 화랑에서 열렸다.

문화체육부와 롯데 백화점이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백제금동 용봉 봉래산 향로」의 문양을 주제로 식용품을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복원불사 예산부족
장흥 보림사

전남 장흥군이 보림사의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돼 국고 지원을 요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복원이 시급하나, 8건의 불사에 필요한 14억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국고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불교를 찾아가는 길
김형중 지음
불교를 향한 첫걸음을 딛게 하는 불교교리 입문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바다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수 있을까? 이것이 이책의 화두이다.
이 순간, 이땅에 부처님께서 계신다면 우리들에게 불교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시고 지도하실까? 불교는 인생에 대한 고뇌에서 출발했으며, 또 그것에 대한 물음이며, 괴로움을 해결해가는 길을 찾는 과정이며, 삶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불교를 찾아가는 길〉은 바로 이런 내용을 불교의 기본 교리와 연결지었다. 불교의 전문용어를 일반적인 용어로 쉽게 해석하여 누구나 쉽게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의 현실 문제를 불교 교리로 해결하는 지혜로 설명하면서 경전속에 나오는 적절한 비유와 상징을 들어 이해를 돕고있다.
신국판/252면/값 4,800원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
정의행 지음
우리 불교를 바르게 발전시킨 선지식의 삶과 사상
민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동체대비(同體大悲) 보살의 길을 걸었던 선지식들의 불교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
수많은 불교역사인물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단지 그 업적을 거론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돌이켜 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하여 불교를 바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는 유명한 고승들 위주로 쓰여진 종래의 인물사나 열전과는 달리 불교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만중의 복리를 위해 헌신했으면서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식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더불어 오랜세월동안 왜곡 평가되어온 인물들에 대해서도 불교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재조명하였다.
신국판/374면/값 7,600원



불교출판 밀알 TEL5290140~5 · FAX5792312

불교성지순례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네팔 11일
● 출 발 : 11월 18일, 12월 3일 동참금 165만원
● 입 정 : 서울-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스리바스티-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

● 수천년 베일속에 가려진 금단의 신비
티벳·네팔 10일
● 출 발 : 11월 5일, 11월 19일 동참금 230만원
● 입 정 : 서울-카트만두(스와이엠부넛, 보드넛)-리사-시기체-장뙤-리사-카트만두-서울

● 부처님 치사리 친견
스리랑카 6일
● 출 발 : 출 발 : 11월 11일, 12월 2일 동참금 108만원
● 입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루와-시기리아-덤불라석굴-캔디-콜롬보-서울

● 불탑의 나라
미얀마·태국 8일
● 출 발 : 11월 18일, 12월 9일 동참금 140만원
● 입 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 중국 불교문화의 진수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11월 18일, 12월 2일 동참금 195만원
● 입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정주(소림사)-태원-오대산-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 4대성지와 불교유적지
중국4대 불교성지 21일
● 출 발 : 11월 18일, 12월 9일 동참금 270만원
● 입 정 : 서울-상해-보타산(관음보살도량)-항주-황산-구화산(지장보살도량)-남경-성도-아미산(보현보살도량)서안-낙양(용문석굴)-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 세계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드로사원
인도네시아 5일
● 출 발 : 11월 20일, 12월 4일 동참금 85만원
● 입 정 : 서울-바리(텐파사)-족자카르타(세계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드로사원)-자카르타-서울

● 불광사, 화련
대만 5일
● 출 발 : 11월 27일, 12월 18일 동참금 65만원
● 입 정 :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불교성지순례 전문업체
혜초여행사 대표전화 (02)544-1533

방송 단신

개국추진 현황 설명
국회 정각회 초청
불교텔레비젼

불교텔레비젼(대표이사 · 태응)은 지난 25일 서울가든 호텔에서 국회 정각회(회장 · 권익현) 회원을 초청, 개국추진 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익현 김동근 신경식 허재홍의원등 10여명의 국회 정각회원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이호 경영관리국장의 현황보고와 이태행 방송본부장과 함께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호 경영관리국장은 1994년 9월 1일 불교TV가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지난 31일로 마감된 주식공모와 주주구성에 따른 자본현황과, 본사(금호전기 빌딩) 1층에 공사중인 제1스튜디오와 제2 · 제3 스튜디오 건설 추진사항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설명했다.

또, 이국장은 불교TV의 설립취지에 맞는 방송계획과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내년 1월 시험방송, 3월 본방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론을 불교TV와 국회 정각회는 도출해 냈다.

가족윤리 특집
BBS, 31일부터

혼미해진 가족윤리를 불교적으로 진단하고 방향모색을 하는 시간이 불교방송 '오늘을 이끄는 불교'(PD 박상필)에서 마련됐다.

정병조 (동국대 국민윤리) 교수를 초청, 「불교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방송되는 '오늘을 이끄는 불교'는 31일 부터 건전한 가정,현대가정의 문제점,가족구성원의 문제, 가정교육,바람직한 가정, 불교와 가정을 내용으로 오는 5일까지 진행된다.

'오늘을 이끄는 불교'는 월~금요일 11시 5분부터 20분까지 방송되는 현대생활의 불교적 해석 프로다.

교리강좌 회향법회
정인스님, 공개강좌로

불교방송 '교리강좌' 프로에서 6개월간 〈근본불교 교리강좌〉를 진행한 정인스님이 지난 28일 프로그램 회향법회를 3층 공개홀에서 가졌다.

이날 법회는 공개강좌 형식으로 애청자들의 질문과 스님의 법문으로 진행됐다.

한편 '교리강좌'는 정인스님의 뒤를 이어 한정섭 법사가 지난 17일부터 〈불교교단사〉를 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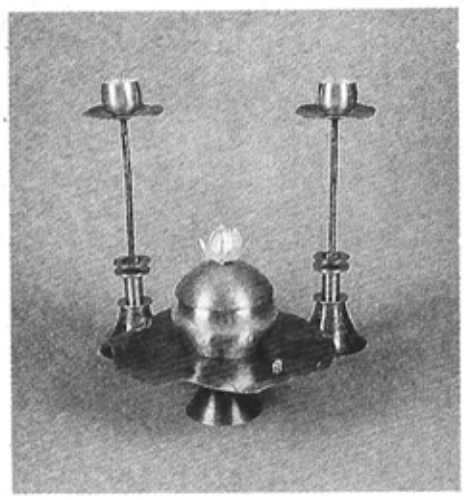
"영가여 극락왕생 하소서"

조계종 천도재, 태고종 49재등 성수교 참사 고혼위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탄성)은 지난달 3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성수대교 붕괴와 충주호 유람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명을 달리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동안을 에도기간으로 설정한 조계종이 봉행한 이번 합동위령제에는 총무원장 탄성스님 등 종단 집행부 스님들과 승가대 석림회등 스님들과 유가족등 5백여명이 참석,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였다.

한편 태고종(총무원장 · 서봉)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참사에 따른 희생 영령들을 위로하고자 희생32영가들의 49재를 봉행한다. 49재단 영가들의 영혼 천도를 위하여 49일동안 부처님께 기원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의식으로써 초칠재에서 육칠재까지는 태고사 삼천불전에서 봉행하고 마지막 칠칠재는 봉원사에서 종단의 명망있는 대덕스님 및 인간문화재스님들이 참석하여 여법하게 봉행된다. 또한 49재 기간동안 태고종 2천5백 사암에서는 일제히 조석으로 참사로 인해 희생된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축원을 실시하고 있다.



◇「연꽃공양」…양승옥씨의 제22회 동아공예대전 대상작.

보우국사 탄신법요식
태고종 사암 일제히 봉행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은 종조 태고원증 보우국사 탄신 6백93주년 기념법요식을 지난달 25일 총무원과 전국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했다.

보우국사가 주석했던 북한산 태고사에서 봉행된 다례법요에는 서봉 총무원장등 종단 스님들, 전국신도회 , 동방불교대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서봉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태고 보우스님의 원융회령과 화합정신을 깊이 인식해 한국불교의 전통법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김상백)는 내년 10월을 '태고 보우국사의 달'로 지정해 줄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문화체육부로 발송하고 '태고 보우국사의 달' 지정 결의법회를 봉행하고 중흥사등을 참배하는 성지 순례를 실시했다.

서암스님의 탈 문중론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조계종 개혁이 오는 22일 총무원장 선거로 일단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 3.29 조계사 사태로부터 8개월 가까운 산고의 결실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선거가 공고되자마자 총무원 주변에서는 누가 총무원장에 유력하냐는 말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모두들 공명선거로 불교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바램을 잊지 않는다.

이러한 때 전 종정 서암스님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중의식에 얽매이지 않는 승가풍토를 조성할 때만이 한국불교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4.10 승려대회의 종정불신임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전개 과정에서 홀연히 사퇴를 선언하고 물러갔던 스님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본시 문중이란 중국에서 5종가풍이 벌어지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의 문중이란 무슨 독특한 종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저 세력집단으로 존재할 뿐이니 이게 모든 폐단의 근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현대 한국불교 역사에서 종권과 문중은 불가분의 관계를 만들어왔다. 따라서 문중의 장점을 거론하기보다는 종권다툼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문중의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선거를 앞두고 문도회의가 열리고 있다. 회의를 가졌다는 것이 곧바로 문중의식의 표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간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잠재울 수는 없다.

"옛날에는 제자를 두는 것도 함부로 두지 않고 엄격하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제자의 얼굴도 잘 모르는 스승이 있을 정도입니다."

스님의 지적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불자들은 또다시 기대를 모을 것이다. 누가 총무원장이 되느냐에 대해서 초연할 뿐인 말없는 대다수의 불자들은 '고통속에 탄생한 개혁회의니 만큼 이번만은 문중에 얽매여 종권다툼하는 선거가 아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목탁소리

정성운 기자

높이 88미터 청동대불 조성
중국, 강소성 소령산에

중국 정부는 지난 20일 강소성 무석시 소령산상에서 높이 88m에 이르는 세계최대 청동대불 공사에 착공했다.

당나라 고승 현장이 작명한 소령산의 이름을 따 영산 대불로 명명된 이 천동 대불은 석가모니 입상으로 연좌 높이만도 28m에 이르며 96년말 완공돼 개안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불의 주조는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인 대여산 보련사에 있는 세계최대 청동좌불인 천단대불의 제조회사인 남경신광기계창이 맡았으며, 설계는 화동건축설계원이 맡았다.

이 입상불교대불의 주조와 함께 기독교산인에 근본을' 두고 신력을 공포, 악습의 철폐를 주장한 태평천국시대(1851~1864)와 극좌사상이 판친 문화대혁명(1966~1976)때 두차례나 파괴된 역사적인 사찰 상부사도 새로 복원된다.

구독신청
전화:737-8881

안정사 괘불 친견
법화종 신도 2천여명

대한불교 법화종 안정사(주지 설호)는 지난달 21일 법화종 문구암 종정, 대호 총무원장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2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괘불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282호로 지정돼 있는 안정사 괘불은 길이 13M 폭 10M로 고려말 제작된 것이다.

■인터뷰

"중국어도 배우고 장애스님도 도우세요"

「포교 중국어」 강좌가 마련된다.

오는 14일부터 개강하는 포교 중국어 특강은 「장애스님 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미영순(현대 중국연구회 수석연구위원)씨가 지도한다. 기초반(3개월)을 거쳐 「백유경」(1개월) 「중국대승불교개설」(2개월) 「법화경」(3개월)등으로 순차적으로 강좌를 늘여갈 방침이다.

강의에는 스님, 일반인, 직장인, 주부등 의욕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회비는 10만원이다. 이 회비는 기본자금을 제외한 전액을 장애인 스님들의 포교활동을 위해 쓰여진다.



미 영 순
<현대 중국연구회 수석 연구 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과 불자님들이 찬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교재, 강의 시간표작성등 준비에 분주한 미영순씨는 89년 대만 정치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영순씨는 스스로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학문의 길을 걸은 「의지의 여성불자」로 잘 알려져 있다.

"장애인 스님들이 장애자들의 포교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적 뒷받침이 전무하고 인식의 한계도 너무 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강좌는 월, 수, 금반(오후 7시30분~8시20분)과 화, 목, 토반(오전 7시30분~8시20분)으로 나뉘어 견지동 한마음불교회관 지하 다원 녹수청산에서 실시된다. 〈문의 : 265-3303, 722-4162〉

社 告

회귀 · 절판본 재출간 동참안내

불서보급의 공덕, 여시아문이 함께 합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희귀,절판본 불교서적류 발굴해 재출간 작업을 펼칩니다. 가치 있는 불서, 그러나 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는 불자들을 위해 결치는 불서 재출간 사업에는 희귀본, 절판본 불서를 소장하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의 서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손으로 전해져야 할 값진 불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재출간 대상 도서 : 희귀본이나 절판되어 유통되지 않는 불서
접수기간 : 수시
연락처 :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도서출판 여시아문
〈 문의 : 737-8881 〉

주부 신행담 모집

감동의 신앙체험 독자들과 나눕시다

신행체험담,기행,일기,기도영험담등을 모집합니다. 주부님들이 신행 현장에서 겪은 감동적인 체험들을 보내주시면 16면 주부신행담에 실어드립니다. 원고매수는 제한이 없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수시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보낼곳 :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사
주부신행담 담당자 〈 문의 : 722-4162 〉

주부 모니터 모집

정법 포교의 파수꾼이 될 주부님을 모십니다.

기사 정보 여론제공 '현대불교의 가정기자'

현대불교를 읽으시면서 느끼는 소감이나 주위의 의견 그리고 각종 정보와 여론을 수집해 보내주실 주부모니터에 주부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격 :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하신 주부님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1통(명함판사진 2매),주민등록 초본 1통
선발 : 서류전형후 개별통지
마감 : 1994년 11월 30일
보내실곳 :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주부모니터 담당자 〈 문의 : 722-4162 〉

현대불교신문 법공양 안내

전법은 보시의 근본 불자의 기쁨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창간과 함께 보현행자의 서원을 발들어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펼칩니다. 교도소 군부대 등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합시다. 전법이 법공양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받아 보실 분 : 지정할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사가 선정하여 우송합니다.
보낼 곳 : 교도소 군부대 병원법당 사회 복지시설등
문 의 : 총무국 (02)737-8881
주 소 :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한마음불교회관

현대불교신문사

수미산 여행사는 열린 세상을 향한 불자 여러분들의 눈, 발, 귀가 되겠습니다.



(주) 수미산 여행사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 효도 대잔치(제1차)

오곡이 무루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회갑, 고희를 맞이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피로연을 열어드리며 아울러 관광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회 비 : 1인당 55만원
▲ 제 1 차 : 1994년 11월 22일~11월 26일
▲ 접수마감 : 1994년 11월 15일
▲ 제 2 차 : 1994년 12월 13일~12월 17일
▲ 접수마감 : 1994년 12월 5일

日 程 表

일자	지역	일 정
제1일	서 울	김포공항 2(신)청사 2층 외환은행 집결
	방 콕	김포공항 출발,방콕 돈무앙 국제공학 도착
	파 타 야	파타야로 이동,호텔 투숙
제2일	파 타 야	조식 후 산호섬 관광 및 해변에서 휴식 오후 회갑 피로연 행사 동참
제3일	파 타 야	농눅빌리지에서 민속쇼,코끼리쇼 관람
	방 콕	방콕으로 귀환,황금불 사원 순례
제4일	방 콕	방콕 시내관광(수상시장,새벽의 사원,왕궁,에메랄드 사원 등)
제5일	방 콕	방콕 출발 서울 김포 국제공항 도착,해산 ＊＊＊＊＊감사합니다＊＊＊＊＊

＊ 상기일정은 출발당시의 항공스케쥴/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여행번호	방문지	여 행 일 정	요금	출발일 11월	12월	'95.1	2월
				매월	첫째,셋째	금요일	
INA-01	인도 8일	불교 4대성지	130만원				
INA-02	인도 30일	인도전역,(태낭여행 및 자유여행 가능)	195만원		23		
INA-03	인도12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람푸르)-럭나우-델리-방콕	200만원 (155만)	8	13	10	28 3/7
INA-04	인도15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230만원 (200만)	18	2	6	10 3/3
INA-05	인도 17일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아그라-보팔-산치-잘가운-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방콕	260만원 (220만)	22	6	3	7
INA-06	인도 22일	방콕-카투만두-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운-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콜롬보-아루라다푸라-폴로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320만원 (270만)		18 25		5 19

＊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코스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수에 참선…"일터가 즐겁다"

관공서·대기업 등 스님 초청 지도

스트레스 해소·정신력 계발 효과 커

이경숙 기자

관공서·기업체 연수에 참선 바람이 불고 있다.

내무부나 농림부, 법무연수원, 경찰대학, 국방대학원 등의 관리자 재교육이나 직원교육 그리고 현대 삼성 코오롱 대우 등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등의 교육과정에 참선강좌가 개설돼, 호응을 얻고 있다.

대부분 자기성찰 인성계발 등의 일환으로 도입된 참선은 참가자들에게 정신력 강화 또는 정신통일의 경지를 느끼게 해주어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총무처가 주관하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봄 가을 일년에 2번 실시하고 있는 핵심관리자 과정은 감사관, 서기관과 1·2급 간부급 공무원들이 핵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일주일간의 교육과정이다.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북한의 통일대비 △창의력 개발 훈련 등과 함께 △좌선이 4시간 배정되어 있다.

담당은 성암도스님(조계종 전 포교원장·삼원사 주지).

검사등 검찰행정직들이 연수를 받는 법무연수원에도 좌선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직업인 검사등 법무부 직원들에게 참선은 더할나위 없는 최고의 심성계발방법이고 정신수양에 좋은 방법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연수를 끝내고 내는 소감문에서 대부분이 "참선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최고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주 해야겠다"라는 소감을 써 낸다는 것.

역시 암도스님이 지도하는데 스님은 처음에는 1분 그 다음날 10분, 20분, 40분, 1시간 등 초보자들이 자연스럽게 선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지난 77년 처음으로 경찰대학 교육에서 좌선을 지도한 뒤, 반응이 좋아 내무부 국방대학원 등 정부기관 교육원에서 불교 강의와 함께 좌선을 지도하고 있는 암도스님은 조직사회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있어 참선은 마음의 여유와 정신력 강화에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현대 삼성 대우 럭키 포항제철 등 대기업들도 신입사원 연수나 직원재교육에 특강 형식으로 스님들을 초청한다.

'불교'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참원 삶'등 제목의 특강에서 초청법사들은 선의 중요성, 현대생활에서 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선에 대해 지도한다. 따라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참선에 호기심을 발동 자연스럽게 참선에의 의욕을 나타낸다는 것.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실시된 중앙공무원 교육원 40기 핵심관리자 과정에서 좌선강의를 들은 구본충씨(서기관)는 "평소 참선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좌선강좌를 듣고 새롭게 개안을 한 것 같다."고 토로하며 "초보자지만 선을 하고보니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게 돼 앞으로도 계속 해보고 싶다."고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일년에 5백회이상 관공서나 일반 기업체 연수등에 좌선 강의와 불교특강을 나간다는 암도스님. "탐 진 치 삼독심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마음을 비우고 비워 더 이상 비울 것이 없는 청정한 본래의 참마음으로 복귀하는 방법이 '선'이므로 본래 면목을 찾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활에서 참선을 해야 한다"면서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 참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직장인들의 의식구조와 근기에 맞도록 참선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법사들이 많이 나온다면 참선 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 성철스님…

전국불자 추모, 영정도 봉안

성철스님 열반 1주기 추모법회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앞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회의 의장 해암스님을 비롯 교계스님들과 신도 2천여명이 참가 큰 스님의 위덕을 기렸다. 한편 백련암은 이날 성철스님의 표준영정을 봉안했다. 세로 202cm 가로 116cm 규모의 표준 영정은 조선조 전통 영정의 맥을 이은 김호석씨가 제작한 것이다. 김씨는 이 영정에서 성철스님의 얼굴 빛을 내기 위해 스님의 생가 구들의 흙을 이용했다.

전국 강원 통일교재 채용

3백년만에 탄허스님 현토본

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창열)부설 교림출판사가 펴낸 탄허스님 현토 9권경서가 전국 강원(승가대학) 통일교재로 채택됐다.'

이로써 각 강원은 3백여년만에 초발심자경문 치문(사미과) 도서절요 선요서장(사집과) 금강경 기신론 원각경 능엄경(사교과) 화엄현담(대교과)등 통일된 규격교재를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동안은 서로 다른 교재를 써왔다. 일반대학에서도 한문교재로 채택했다.

대행스님 초청법회

13일 KBS부산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원장 혜도)은 오는 13일 오후 2시 KBS 부산홀에서 '참인간으로 사는 길'을 주제로 대행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종교법인법 제정 촉구

박종웅의원 국감서 신흥종교 3백90여 종파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박종웅의원(민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교계의 증과는 80여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종교개혁'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종교계는 분파주의로 인해 기독교계는 1백80여개, 불교계는 80여개, 종단이 난무하고 있고 사이비 시비가 일고 있는 신흥종교가 3백90여개 종파에 이른다"며 "정부는 헌법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감전 스님과 교수, 신부, 목사등 종교관계자 50여명과 접촉해 나름의 분석을 보태로 사이비종교 발생 방지와 건전종교단체 보호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칭 '종교법인법'제정을 촉구, 정부로 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교정불자 연수법회

충남 온양서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이사장·이혜철)는 10월31일과 11월1일 이틀간에 걸쳐 충남 온양시 온양동 제일장호텔에서 "제1회 전국 교정시설 불교담당 연수법회"를 개최한다.

전국 38개 교도소 교루과장, 교정기관, 각 교도소 불자회 등 교정시설 관련단체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 이번 연수법회에는 박선영 교수(동국대)가 '불교의 자비정신과 교정활동'이란 제목으로 강의 했다.

이번 교정시설 불교담당 연수법회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된 재소자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재범이 없는 밝고 명랑한 풍국정토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공양미 모으기 운동

동명사 11월 한달동안

서울 압사동 동명사(주지 지명)는 11월 한달동안 공양미를 모아 경로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심포교당으로 개원한 동명사는 '작은 정성을 모아 모두의 기쁨으로 나누자'는 슬로건 아래 부처님 전에 공양한 백미를 모아 성남 자광원에 보시한다.

금번 동명사의 공양미 모으기 운동은 11월 한달동안 계속된다.

전국대표자 연수회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명호근)는 오는 19일,20일 양일간 오후 6시, 오전 10시 법주사 풍암에서 전국대표자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 첫날은 '통일시대 한국불교의 좌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은 후 대전지부의 동문회연합 성공사례를 듣는다. 다음날에는 전국조직의 효율적 운영, 재정확보, 법인화 등에 대해 회의를 갖고 연이어 사업계획도 심의한다.

대전광명의원개원

노인 무료진료 시작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이 운영하는 노인무료병원이 대전에도 개설됐다.

대전광명의원은 지난 27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노인무료 진료에 들어갔다.

대전광명의원은 홍현수씨가 1억 5천여만원의 개인재산을 희사함으로써 대전시 동구 삼성2동 의료보험관리공단 5층에 병원을 마련하였다.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임상병리 방사선과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두레 생태기행 실시

두레생태기행(대표·김재일)이 지난달 23일 경기도 화성군 호곡 앞바다로 생태탐사를 다녀왔다. 두레생태기행의 창립식을 함께 가진 이날 탐사는 서해안일대의 갯벌을 조사했다. 또 박용안교수(서울대 해양학과)의 갯벌에 대한 이론강의와 공해에 희생된 갯벌생물 진혼고사도 함께 가졌다.

조계종 보유 부동산

총 2억 3천여만평

남한국토의 0.7%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규모가 7억6천71만㎡ (2억 3천11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실시한 불교재산 공개에 따라 각 본사별 등록재산을 집계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이중 임야가 전체의 97%인 7억3천5백25만㎡ (2억2천2백80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조계종단의 이같은 부동산 규모는 93년말 남한 전국토면적 (9백93억9천1백만㎡)의 0.7%에 해당한다.

한편, 종단소유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본사는 월정사로 모두 1억4백14만㎡(3천1백55만평)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관계자는 "사찰소유 부동산이 대부분 임야인데다 '국립공원 관리법'등에 묶여있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불교환경교육원 창립

2일 기념 심포지엄…「불교의 생명사상」등 토론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11월2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강당에서 창립대회 및 기념심포지엄을 갖는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지난 8년간 한국불교사회교육원 이름으로 활동해 오다가 6월30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으면서 새로이 「한국불교환경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행사는 제1부 창립대회, 2부 심포지엄, 3부 하하 리셉션으로 진행된다. 제2부에는 '환경위기시대의 불교사상'이란 주제로 김용정교수(동국대)의 '불교의 생명사상과 환경문제' 도용희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불교의 과제'등 학술발표가 있을 예정.(02)765-6324

양천구민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계종, 내년 가을 개관예정

조계종이 새 도심가인 목동에 목동청소년회관에 이어 또 하나의 시민 체육센터를 관리 운영하게 된다.

조계종은 지난달 21일 YMCA등 11개 단체와의 치열한 경합끝에 양천구민 체육센터 관리운영체로 수탁 선정됐다.

건평 총 2천5백여평으로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이 갖추어질 양천구민 체육센터는 총 약 80여억원 공사비로 현재 60%의 공정을 진행중에 있다.

조계종은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완공되는 내년 가을 개관과 함께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한편 조계종은 중랑구 신내택지 개발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을 신청중에 있다.

공명선거감시단 발족

동국대 석림·동림동문회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회장 혜총)와 동국대학교 동림동문회(회장 성용)는 지난달 25일 공명선거 감시단을 공식 발족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금번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 많은 종도들의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주권행사에 참여토록 계몽하고 홍보해 부정선거를 막아내 명실공히 민주적 승가 선거 풍토가 정착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바라밀결사 기도입재

안성 도피안사

반야바라밀 실천을 통해 분국토건설을 염원하는 '반야바라밀 결사1백일 기도'가 지난 22일 경기도 안성 도솔산 도피안사(주지 송암)에서 입제됐다. 1백여 불자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주지 선암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생명은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라며 "용맹정진하여 바라밀 국토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비구니 선거권 개정 청원

동국·승가대등 차별조항 철폐 성명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호)는 지난달 25일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에 관한 회의를 갖고 개혁회의 비구니 9인 의원이 10월 31일까지 30인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에 보고하라고 결의했다.(26일 현재)

이에따라 30인 추천위원회에서 10명의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선관위는 또한 30인 추천위원회 구성과 10인 중앙종회의원 추천의 과정과 절차 원칙이 비구니계와 종단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1차 개혁회의 본회의에서 모든 종도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비구니에게도 공정하게 주어지길 청원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함으로 인해 비구니단체소임자 스님들은 당일 저녁 대표자 회의를 갖고 차별적 조항이 삭제 내지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종회에 청원키로 결의했다. 또한 서명운동도 비구스님까지 확대 실시키로 하는 등 비구니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한편 비구니 종회의원 선거권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차별조항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가 동국대·중앙승가대 비구니회를 비롯 동국대 석림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 전국승가학인연합 등에서 각각 잇따르고 있다.

좁은공간을 2배로! 편안함을 2배로!

해태 Wall Bed System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수납형 침대로 좁은 방도 더욱 넓게 쓰십시오.

공간창조

효과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수납형 침대!
침대를 들여 놓으면 방이 좁아진다구요?
해태 Wall Bed System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실겁니다.
해태 Wall Bed System은 좁은 공간에서 더욱 돋보이는 수납형침대입니다.

자유연출

공간연출을 위한 Combination Plus System!
침대는 물론 책상, 수납장, 책장, 장식장, 옷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용도와 크기에 따라 기능을 자유자재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고 경제적입니다.

과학설계

과학적인 설계의 에어실린더 시스템 채용!
스프링이 아닌 에어실린더 시스템을 채용하여 작동소음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어린이 혼자의 힘으로도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손쉽게 작동됩니다.

해태 Wall Bed System
이런 곳일수록 안성맞춤입니다.

아파트, 원룸 시스템, 신혼부부방, 주니어 공부방, 오피스텔, 교육기관의 연수원, 기숙사, 병원의 병동 등

총판·대리점 모집 해태와 함께 Wall Bed System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실분을 찾습니다.
1.모집기간 : 1994. 10. 17(월)~10 31(월) 2.지역 : 전국 시이상지역 3.자격 : • 담보제공 가능하신분 • 건축(설)업체 및 가구영업능력 보유하신 분
4.제출서류 :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사업계획서 각1부씩 5.접수처 : 135-10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68-19(삼윤B/D 1F) 6.문의 전화 : 02)518-8078 해태 Wall Bed System사업부

해태전자(주)
WALL BED SYSTEM 사업부
TEL:(02)518-8078

이른후 건강칼럼 <3>

마 음 한길 사람속 왜 모를까

우리가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은 오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시각을 통해 모습을 볼 수 있다. 눈은 대상물의 형체를 볼 수 있는 기관이다. 키가 크다든지 몸이 뚱뚱하다든지 눈으로 보면 알 일이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대상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안다. 눈을 감아도 같은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청각 덕분이다. 코로 냄새를 맡아도 할 것이다. 그러니 오관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지각에 제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모든 지각의 대상물은 실체가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은 그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 지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으니 볼 수가 있겠는가. 소리가 없으니 들을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란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신체처럼 볼 수가 있는 것이 못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마음은 참 순하다" 거나 "저 사람의 마음은 아주 고약하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한다. 꼭 마음을 본듯이 말하고 마음의 소리를 들은 듯이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체와 같은 모습으로 지각할 수는 없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오관을 통해 직접 볼 수가 없으니 그 깊이인들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의 몸은 직접 오관을 통해 지각할 수가 있지만 마음은 신체처럼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지각할 수가 없다. 다만 나타나는 여러가지 모습을 보고 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고 짐작할 뿐이다.

실체없어 겉모습 보고 짐작

대상물을 분별할 수가 있다. 피부로 만져 느끼는 촉각도 대상을 지각하는데 중요하다. 가령 눈먼 장님이 손으로 더듬어 보고 대상물을 감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는데 피부의 촉각이 대상지각에 동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입맛을 아는 혀도 지각하는 기관으로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그리고 맛을 보는 오관이 대상지각에 동원되는 우리 인체의 감각기관들이다. 오관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이 탈이 나있으면 대상을 지각하는데는 그만큼 제한이 있게 된다. 눈이 멀면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귀가 먹으면 소리자극을 수용하지 못

주부신행담

매일 죽는 여자 ②



저들 부자와 난 무슨 인연으로 얽혀있을까

그 다음날부터 일체 다른 치료는 중단하고 화상치료만 한달을 넘게 하였다. 남편은 통증에 시달린 나머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그가 처음 주인공 공부를 접했을 때는 굉장한 환희심으로 직접 「신행도(信行道)」를 만들어 유창하게 포교를 했고, 얼굴의 사마귀를 관법만으로 떼어내고, 심하게 벗겨지던 발바닥까지 말짱하게 치료할 정도였다. 그런 체험과 신심은 모두 어딜갔을까? 이상하고 답답하여 '왜 주인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냐?'고 하면 자기도 주인공에 관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급기야는 입막음 하느라고 '계속 잔소리하면 절에도 안나갈 것이며 나도 못나가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더니 어느날엔 옆에 있는 것도 귀찮으니 나에게 딴방을 쓰라고 했다. 내가 곁에 있으면 부담스럽고, 귀찮고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결국은 자기 혼자서 아픈 것 아니냐는 억지를 부렸다. 그의 강함에 밀려 군인간 아들의 방으로 내 거처를 옮겼다. 밥이면 혼자 약을 바르고 의자에 앉아 신음하는 그를 보다 못해 마음 다져먹고 큰스님을 뵈었더니.

"그 사람이 주인공을 알면 열심히 관하라고 하세요."

집에와 큰스님의 말씀을 전하자 남편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고 다니느냐?'며 역정을 냈다. 나는 비로소 보았다. 통증에 시달리는 사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빙산이 결빙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작은 촛불 하나로 그것을 녹여버리려 했다는 것을. 그것은 마치 작은 신발을 억지로 큰 발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나 다름없었다.

나는 남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감싸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 나의 걱정이나 조언이란 그에게 상처만 더해줄 뿐이었으리라.

몇번이나 이불을 싸들고 안방으로 건너가 그의 곁에 자는척 누워있어도 남편은 번번히 나를 돌아 넸다.

그즈음 시아버님은 오른쪽 가슴이 몹시 쓰리고 아프시다고 했다. 여름부터 그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했으나 노환이라고만 할뿐 병명이 나타나질 않았는데 점점 심해지셔서 병원의 응급실로 모셔갔다. 검사하시는 중에도 몸을 잘 지탱하시질 못하여 나와 아들이 겨우 부축을 해드렸으나 의사의 소견은 절망적이었다.

광생을 감직하고 청렴하게 사시던 시아버님은 퇴직금마저 공사청부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셨고 집까지 도로개발에 헐리는등 늑마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 시집가기 전 시댁은 가난의 나락에 빠져있었다. 아버님이 실패하시는 바람에 4남매와 생계유지를 어머님이 맡아하셨다. 남자 55세, 아직은 정정하신 나이에 정년퇴직에 떠밀리신 아버님은 30년을 손을 놓고 사셨다.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안일하시다고 · · · , 가끔 아버님이 가슴을 쥐어뜯게 아파하셔도 운동부족이라고 핀잔을 하곤 했다. 난 아버님이 딱하고 측은할 때마다 우리들의 인연의 줄을 생각했다. 저들 부자와 난 무슨 인연으로 얽혀있는 것인가? 남편이 아버님을 미워하니까 저런 병이 걸린게 아닌가? 낚시를 무척 좋아하던 두 남자는 비슷한 시기에 가슴과 어깨를 앓고 있다. 혹시 수없이 가슴을 찢기며 죽어간 고기들의 영령이 붙어있는 것인가?

병원에 다녀오신 다음날, 12월25일 저녁까지 잡수시고 나서 아버님은 끝내 운명하셨고, 남편은 그 몸으로도 장남의 위신을 잃지 않으며 무사히 장례를 마쳤다. 자식들에게 집 한채 못물려주어 평생을 죄인처럼 살다가신 아버님. 막상 타계하시니 아버님의 큰 사랑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장례식 날은 온종일 진눈깨비, 싸락눈이 내려 온통 질척거렸다. 그러나 장지에서 하관을 끝내는 두시간 반동안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짝 개었다. 먹장 구름사이로 자동차의 전조등처럼 밝고 환한 햇빛이 산정상을 비추더니 점차 바람이 멎고 조용한 봄날처럼 산새들마저 지저귀었다. 기적같은, 아니 영화의 한장면 같았다.

"주인공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돌았다. 49재를 올리기까지는 방학중이라 7일째마다 어머님을 모시고 참석할 수 있었다. 홈로 생존해계신 어머님의 외로움이 내 가슴을 저미는 것 처럼 아팠다.

"아버님,'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걱정마시고 다시는 윤회의 바다에서 고뇌의 배를 타시지 마세요." 내 마음속의 눈물젖은 음립이었다. 아버님 장례후, 눈물샘도 없는 남자인줄 알았던 남편은 한 열흘 술먹고 울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병은 더 악화되어 일체의 모임이나 사람 만나는 일도 기피를 하고, 병원에선 화상 치료를 하다 하다 결국은 째고 수술을 하게 되었다. 난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남편을 설득하여 큰 스님을 뵈러갔다. 스님은 친절히 관법에 대하여 일러주시더니 한 보따리나 되는 약을 주시며 "잘 먹어봐요. 나을 거예요."

이 연 옥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욕야경 ②

Then said the Exalted One: Sujātā, a man may have these seven kinds of wives, What seven? One like a slayer, one like a robber, one like a mistress, one like a mother, one like a sister, one like a companion and one like a handmaid.

These, Sujātā, are the seven; and which of them are you?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선여인아, 남자는 이런 일곱종류의 아내를 얻을 수가 있다. 일곱가지란 무엇인가? 살인자같은 아내요, 도둑같은 아내요, 친구같은 아내요, 여주인같은 아내요, 어머니같은 아내요, 누이같은 아내요, 종같은 아내다. 이들이 그 일곱가지이다. 그대는 어떤 아내인가?'

Lord, I do not fully understand what the Exalted One has put it so briefly. Well were it for me, lord, if the Exalted One would teach me Dhamma, so that I ma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s spoken so tersely by the Exalted One.

부처님, 저는 세존께서 간추려 설하신 바를 잘 알지 못하겠나이다. 저에게 법을 가르쳐주신다면 세존께서 간결하게 설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겠나이다.

Then pay heed, listen, I will speak, Sujātā.

'그러면 선여인아, 잘들으라. 내가 설하리라.'

*Sujātā: 훌륭한 가문의 아들과 딸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선여인으로 번역하였다.

*팔리어로 Dhamma는 법, 진리, 도(道)이다.

*세존: 부처님의 열가지 이름가운데 하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이다.

금호건설

더 쾌적하게, 더 편리하게, 더 건강하게—

■ 국내 최초로 P.C. 부문 ISO 9001인증 획득!
■ 제7회 전국제안대회 최우수상 수상!

인 간 중 심

■ 이미지 마크의 의미
다정하게 어우러진 한쌍의 형상은 인간과 자연을 상징합니다. 조화속에 공존하는 인간과 자연— 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금호건설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금호타운은 인간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금호타운 설계시공의 원칙은 인간중심—.
진정 인간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는 실내 색상으로부터
지하공동생활공간과 조경시설에 이르기까지
금호타운은 인간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사는 최적공간을 창조하려는
금호타운의 인간중심—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색 채 아파트 실내색상을 3종류 (회백색계열, 그린계열, 베이지계열) 로 제시하여 입주자 취향에 맞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아파트 실내문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정 수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앙집중식 정수시설을 도입하여 생물은 부드러운 단물로 바꾸고, 불순물 및 오염물질은 중앙집중식으로 깨끗이 정수한 후 각 가정에 공급합니다.

생 활 지하에는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공동 생활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공간이나 체력단련실, 또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 경 아름다운 수로와 분수대, 상록수림 등의 시각공간과 계단식으로 설계된 대화공간, 현대감각의 장식벽과 통나무 기둥으로 설치된 사색공간 등 도심속에 자연의 느낌을 살려 드립니다.

경 비 21 세기형 첨단 전자경비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집중관리하므로 안전은 물론 관리비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면 모니터를 통하여 거실에서 방문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토지개발공동사업, 빌라·단독주택은 금호건설에 맡겨주십시오.

■ 문의전화 : (02)758-1977~8

금호타운